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81호

Wednesday, April 23, 2025 A

한미관세협상, 트럼프 직접 나설까

한국과 미국 양국의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회담 때처럼 직접 등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미국이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을 상대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꾸준히 지적해온 만큼 이들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을 요구해온 만큼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의제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협의의 장소는 백악관 옆 재무부 청사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장소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 또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등을 요구하는 등 직접 등판해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국가별로 양자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과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통상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협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보통 G20 재무장관 회의 개최 계기에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외환·금융 등 소관 분야 현안을 논의해 왔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양국 통상 책임자까지 회의에 참여, '2+2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부총리가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베스트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한미 통상협약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협의) 결과는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그는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바이든 색채 빼기

국익 부합하지 않아
민주주의·인권 조직 축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소관 부처인 국무부를 개편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시한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 국무부의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자리가 사라진 게 눈에 띈다. 원래 국무부는 이 자리를 비롯해 총 6명의 차관을 두고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을 없애고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했다.

조정관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해운 업무, 그리고 사실상 폐지된 국제개발처(USAID)가 전담해 온 대외원조 업무를 함께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하에 4명의 차관보와 3명의 특사가 있었지만, 조정관 체제로 축소되면서 민주주의·인권·종교자유 차관보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만 유지하게 됐다.

국제마약·법집행 차관보는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이관됐으며, 3명의 특사는 없었다.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밑에 신흥위협 담당 차관보를 신설했다.

장관 직속으로 글로벌여성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도 폐지됐다.

정무차관이 담당하는 지역국의 경우 아프리카국을 폐지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으나 아프리카국을 포함해 현 지역국 체제를 유지했으며, 대테러 담당 차관보만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소관으로 변경됐다.

한국의 부산의 영사관 폐지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루비오(사진)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형태의 국무부는 비대하고 관료주의적이며 강대국이 경쟁하는 새 시대에 필수적인 외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마구 확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 핵심 국익의 진전보다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더 중요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방미 한국인 작년보다 감소 3월 15%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방문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 3월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인 방문객은 1~3월에 각각 9%, 16%, 15%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먼저 무역 분

쟁을 벌인 캐나다, 멕시코의 방문 역시 급감했다.

캐나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3월에 자동차로 방문한 캐나다인은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고, 항공편으로 들어온 멕시코인도 17%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콜롬비아(-33%), 독일(-28%), 스페인(-25%), 영국(-14%), 중국(-11%), 호주(-7%) 국적 방문객이 크게 줄었다.

한덕수, 추대위 출범에도 침묵

“관세협의 후 출마여부 결정” 관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장관 간 '2+2 협의'를 이틀 앞둔 22일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2+2 협의' 이후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도 6·3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한

한덕수

대행이 24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한국 시간으로 이날 밤 열리는 한·미 간 협의를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얘기가 유력 거론된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인 만큼 4월이 끝나기 전엔 출마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관세 협상을 매듭짓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상 전문가’ 타이틀이 한 대행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만큼 미국과의 협의 성과를 토대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출마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23일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도 본격화됐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자 윤석열 아바타"라고 주장했다. "내란대행 '한덕수' (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이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규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면지팔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교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히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트럼프 범죄 소탕 의지 드러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트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 are next, the homegrown)”이라며 “(엘살바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팜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

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1/8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달러가치 3년래 최저 금값 3400불 첫 돌파

달러화 가치가 장중 3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의 피난처로 떠오른 금값은 처음으로 3400달러 선을 넘어섰다.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1일 오전 7시25분(이하 서부시간) 전 거래일보다 1.25% 하락한 98.13을 기록했다.

달러인덱스가 장중 98선으로 밀려난 것은 2022년 4월 5일(98.84) 이후 3년여 만이다. 반면 엔화가치는 달러당 140.67엔으로 지난해 9월 말 이후 가장 비싸다.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은 안전자산



인 금으로 쏠렸다. 국제 금값은 지난 21일 오전 0시 45분 전 거래일보다 3.03% 오른 온스당 3428.39달러를 기록하며 3400달러 선을 뚫었다. 금 시세는 이날 장중 온스당 3430달러선까지 치솟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내년 중 온스당 4000달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이 출렁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거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의 장을 해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한 영향이 크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달러화 지위에 대한 의구심까지 커지면서 21일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1.82포인트(-2.48%) 떨어진 3만8170.41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50포인트(-2.36%) 내린 5158.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5.55포인트(-2.55%) 내린 1만5870.90에 각각 마감했다.

염지현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영킨 VA 주지사, 불체자 521명 체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2월 이후 버지니아에서 모두 521명의 범죄경력 불법체류자가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중 132명은 MS-13과 트랜드 아라구아 등과 같은 갠단 조직원이었다.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모두 연방 이민당국과의 공조작전에 의한 것

이었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2월 행정명령 47에 서명하고 버지니아 주립 경찰과 교정국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287(g) 불법체류자 신원 인도협정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이 연방 이민법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VA 실업률 3.2%,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은 버지니아의 3월 실업률이 3.2%로, 2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실업률은 2.8%였다. 메릴랜드의 3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0%였다.

작년 3월 실업률은 2.9%였다. 버지

니아는 3월 한달동안 모두 9233개의 비농업분야 일자리가 증가했다. 메릴랜드는 1957개 감소했다. 워싱턴 DC 실업률은 5.6%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3월 한달동안 28개주의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상승했다.

연준은행, 연방정부 최대120만명 감축 전망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연준)이 10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감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준의 M. 멀린다 피츠 연구원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간접 고용 인력을 포함한 전체 연방정부 공무원 수가 정부의 인력 감축 조치와 고용 동결, 조기퇴직 옵션 등으로 인해 최대

12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피츠 연구원은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고용 수준의 감소는 노동 시장 결과에 주목할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피츠 연구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연방정부 직접고용인원은 240만명이 넘는 수준이었다.

워싱턴 계란·육류·생선 1년새 9.4% 상승

워싱턴지역의 계란·육류·생선 등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최근 1년새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전문 사이트 스마트에셋이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 주요 대도시의 식료품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 계란·육류·생선 가격 상승률은 9.4%로, 캘리포니아 LA(9.8%)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워싱턴 지역의 시리얼·빵류는 7.9% 상승했으나 과일·채소류는 3.1% 하락했다. 워싱턴 지역의 전체 식품물가 상승률은 1.9%로 전국 9

위 수준이었다. 하와이 호놀룰루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5.3%)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플로리다 탬파(4.3%),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4.2%),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3.7%) 순으로 나타났다.

농무부(USD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전체 식료품 가격이 3.2% 상승, 그중 가정에서 소비되는 식품가격은 2.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계란 가격 예측 상승률은 57.6%다.

김옥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4월 23일(수) 78-53

24일(목) 80-55

25일(금) 75-64

26일(토) 79-49

☀️

☁️

🌧️

27일(일) 72-47

28일(월) 76-57

29일(화) 88-68

☀️

☁️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스프링필드 싱글홈 지하 스튜디오

\$1,900

화 1, 덴 2, 부엌, 와셔/드라이어

RENT Coming Soon

센터빌 타운홈

\$3,000

방 3, 화 2.2, 차고 1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무료

www.davidmarkslaw.com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주택 구매 연소득 24만불 필요

VA12만불, MD 13만불

워싱턴DC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24만달러 이상의 연소득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금융정보업체 벡크레이트의 2025년 주택구매경제력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워싱턴DC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24만9달러가 필요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하와이 23만5638달러, 캘리포니아 21만3447달러, 매사추세츠 17만4392달러, 콜로라도 16만8643달러 등을 기록했다. 버지니아는 11만8309달러, 메릴랜드는 13만2295달러였다.

워싱턴 지역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구매에 필요한 연소득이 58% 증가했다. 34개주가 50% 이상 상승했다.

팬데믹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증가율을 훨씬 앞지른 것이다. 유

타가 89.4%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10만달러 이상의 연소득이 필요한 곳은 워싱턴DC와 30개주였다.

반면 웨스트버지니아(6만4179달러), 아이오와(7만437달러), 오하이오(7만1080달러), 미시시피(7만2072달러), 인디애나(7만2342달러) 등은 비교적 적었다. 이번조사는 연방센서스국의 각 지역별 세전 연소득 등을 비교 분석했다.

김옥채 기자

평화통일 기원 ‘탈북민 대축제’ 임박

워싱턴평통

골프·체육대회·탈북민포럼

25-27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린다 한)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탈북민 대축제’를 이번 주말 개최한다.

탈북민 대축제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 그리고 운동을 통해 한인들은 물론이고 타인종들의 긍정적인 통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탈북민을 동참시켜 지역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평화통일 탈북민 대축제는 25일 오전 메릴랜드 햄프셔 그린 골프장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미주부의장배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26일 오



탈북민 대축제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장원반점에서 열리고 있다.

후 버지니아 페어팩스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질 탈북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그리고 마지막 날인 27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평통 사무실에서 열릴 탈북민포럼으로 2박3일간 이어진다. 둘째 날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에서는 족구, 걷기, 태권도시범에 이어 탈북민들의 공연과 장기자랑이 마

련될 예정이다.

22일 사전 설명회에서 린다 한 회장은 “이번 축제는 탈북민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며 “워싱턴 평통은 탈북민 대축제를 통해 평화통일의 메시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소매범죄치포럼’ 5월13일 개최

버지니아주 리스버그 경찰국이 제2회 연례 소매 절도 포럼을 내달 13일 오전 ‘아이다 리 레크레이션센터’ 지하 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소매점 도난과 조직범죄 증가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법당국과 사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 사회 주민 누구나 참가가 가능한 포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대되어 강연에 나설 예정인데, ‘소매점 도난 추세’, ‘기소 및 법적 사항’, ‘예방과 전략’이 주요 주제가 된다.

테아 피르나트 리스버그 경찰국장은 이와 관련 “소매점 절도는 단순한 손실 방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며 “우리는 지식, 자원,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정보는 전화(703-771-6509)나 또는 이메일(mbowman@leesburgva.gov)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고, 소매 도난 포럼에 등록하려면 bit.ly/2025LPDRetailForum을 방문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취/재/일/기

의미 없는 동포지도자 간담회

21일 오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코리아커뮤니티센터에서 청소년 사업 홍보 차 워싱턴에 온 재외동포 협력센터 김영근 센터장과 워싱턴 지역 한인 지도자들과 만남의 장인 ‘동포간담회’가 열렸다.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이지 간담회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였다.

오후2시에 시작한다는 초대 내용에 따라 워싱턴 지역 2개 한인회장을 비롯해 20명의 단체장 및 리더, 그리고 언론인들은 미리 현장에 도착 서로 간에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자리를 함께해 어색한 장면도 연출됐다.

예정 시간보다 약간 늦게 김영근 센터장은 “오늘 재외 청소년 초청 모국 연수 교육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시작을 알리



면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차세대와 청소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청소년재단이라든가 한국학교협의회, 그리고 차세대 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한인회 등의 참여는 저조한 아쉬움을 남겼다.

또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한인사회 단체와의 ‘상호협력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한인회와 맺었는데, 워싱턴에서는 ‘커뮤니티센터’와 맺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커뮤니티센터는 장소와 공간 대여가 주 사업이지 차세대 육성사업이나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참석 지도자들은 여름 방학을 이용한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규모, 시기, 방법,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가 없어 고개를 갇뚱 뜨는 동시에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진정 동포사회를 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김성한 기자

트럼프, 일부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권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관련 기관의 단체 교섭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보훈부, 국무부, 에너지부, 보건부, 재무부, 연방재난관리청, 미국과학재단, 무역대표부, 이민세관단속국, USAID,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 등의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 정부 노동조합을 인정한 1978년 공무원 개혁법률(CSRA)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CSRA가 연방정부에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광범

위한 재량권을 줬다고 반박했다.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 노조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소송을 불사할 계획이다. 최대 노조인 미국 공무원 연맹(AFGE)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백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의 단체 교섭권이 결코 사라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 노조가 민간 부문과 달리 임금, 복리후생, 고용 및 해고 결정에 대해 협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방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에도 제약이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쿼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노

DUO NY 212-915-7115

2025 미셔널처치 포럼 워싱턴

“서구 교회의 몰락은 선교를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교회의 회복은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Lesslie Newbigin-

일시 5월 19일 (월) 오전 9시 30분 ~ 21일 (수) 오후 3시
장소 워싱턴 헬로쉽 교회 (김대영 목사)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T.301-444-3100

대상 국내외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의 목회자와 사모 및 평신도 리더
등록비 목회자 100불 (부부 등록 150불)
평신도 150불 (부부 등록 250불)
숙소 숙소는 개별 예약
(Spark by Hilton, 20260 Goldenrod Ln, Germantown, MD 20876)

온라인 등록  www.fellowshipusa.com
info@fellowshipusa.com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목사

• 평신도 지역에서
이셔널 치료
• 미셔널 라이프에서
마이크로 치료



송민호 목사
토론토 영락교회
원로목사

• 선교적 교회 리더십을 위한
목회자의 자기 준비 및 자기 훈련
• 선교적 회중 형성을 위한
기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제안



김대영 목사
워싱턴 헬로쉽교회
담임목사

• 이민 교회의 현황과
대안으로서의 선교적 교회
•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선교적 목회



송병주 목사
LA선한 청지기교회
담임목사

• 선교적 교회 V. 1.0
• 선교적 교회 V. 2.0



이상훈 박사
A.E.U. 미성대 총장

• 선교적 교회와 문화 형성
• 선교적 교회의 핵심 요소



신상윤 목사
C3 Ministry 대표

• 작은 교회에서도
선교적 교회는 가능한가?

*문의: 이현재 행정목사 972-693-2467 hyunjae.lee@fellowshipusa.com
김일두 사무장 240-372-8310 idoo.kim@fellowshipusa.com

주관: 워싱턴 교회협의회 / 메릴랜드 교회협의회 / 헬로쉽교회

글로벌 시장 진출 플랫폼 자리매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결산

6억불 이상 상담·5천만불 계약
남가주 한인 기업들도 성과

재외동포청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KBC)’에서 나흘간 총 6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으며 4990만 달러의 현장계약이 체결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글로벌 한류 인기로 힘입어 K-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분야에 특화해 기업전시회를 마련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회에 참가한 뷰티 기업인 M사와 A사는 미주 한인 최대 쇼핑몰인 홈쇼핑월드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행사 이틀날에는 국내 2개 기업은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건축사와 각 2500만 달러, 2000만 달러 규모의 현지 공장 건설 계약도 체결했다.

이밖에 86건에 총 1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 기업과 동포 및 국내 기업과의 수출 및 투자 업무협약(MOU) 체결도 이번 대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힌다.

K-스타트업 경연 대회에 참가한 S사는 동포 투자기업과 약 75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의향을 체결해 주목받았다. 이번 사례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연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회는 2023년 애너하임 대회 이후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로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 경제인, 국내 기업인 등 약 40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의 핵심인 기업전시관에는 2만여 명의 일반참관객이 방문했다.

특히 한미 양국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오영주 한국 중소기업청장 부 장관과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청장이 개회식에 참석, 2025년을 ‘한상경제권 원년’으로 선포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한편 남가주 한인은행을 포함한 기업들도 대회에 참석해 단체 및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보여줬다.

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국내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스와니 지역에 조지아주 첫 지점을 오픈 예정인 PCB뱅크(행장 헨리 김)는 대회장인 개스사우스컨벤션센터에 부스를 열고 국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시했다.

캘코보험(대표 진철희)은 지난 18일 코리아페스티벌재단(이사장 안순해),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 한오동), 동남부의 식당 프랜차이즈 WNB팩토리(공동대표 강신범·트로이 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마케팅과 사업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원희 기자·연합뉴스



■ 바니 이(왼쪽에서 세 번째) 한미은행장이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왼쪽에서 두 번째) 회장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 PCB뱅크는 WKBC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오른쪽부터 데이비드 김 전무, 유지형 조지아 본부장, 정은정 스와니 지점장. ■ 진철희(왼쪽) 캘코보험 대표가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의 한오동 회장과 MOU를 맺은 뒤 악수를 하고 있다.

BMW 이어 아우디 국내 생산

벤츠 또한 생산 확대 검토

현대는 고수익 제품 집중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25%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고급차 생산 기지가 국내로 속속이 전하는 반면, 해외에서 생산하던 저가형 차량은 국내 판매가 중단될 상황에 부딪혔다.

지난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고급차 생산을 늘리고 있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8일 독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우디의 미국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미래 전략을 갖고 있다”라며 “아우디의 미국 생산도 그 전략 안에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는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167만1218대)의 11.8%인 19만6576대를 국내 시장에서 판매했다. 전량 수입한 물량이다. 폭스바겐그룹은 테네시주에서 보급형 브랜드 폭스바겐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고급형 브랜드 아우디와 수퍼카 브랜드 포르세는 국내 공장이 없다. 폭스웨건은 아우디의 국내 생산을 공식화하면서도 기존 테네시 공장을 활용할지, 지난해부터 짓기 시작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전기차 공장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독일의 고급차 브랜드 BMW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탄버그 공장 생산량을 연간 40만 대에서 48만 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37만1346대를 판매한 BMW는 현지 생산 물량 일부를 한국·독일·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32만4528대)는 현재 약 60%인 국내 생산 비율을 2027년까지 70%로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LA 등 보급형 차종의 판매는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는 트럼프 관세에 맞서 보급형 차량의 가격은 동결하고, 고수익 차량 판매를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는 지난 1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저가 차량이 3000~4000달러씩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SUV 팔리세이드 등 관세 부담을 견딜 수 있는 고수익 제품 판매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팔리세이드 완전 변경 모델을 공개하고, 하반기 북미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팔리세이드는 출시 6년 만에 누적 판매 50만 대를 기록한 국내 시장 인기 차종이다.

오상권 기자

갑자기 연방정부 지원 중단 ‘날벼락’

한인 단체들, 커뮤니티 서비스 중단
트럼프 ‘부채 줄이기’ 예산 삭감

#.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KYCC 관계자는 “올해 1월 계약해 2027년 9월까지 진행되는 농무부 지원 LA한인타운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KYCC측은 한인타운 소상공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알리는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의 중단 통보도 받았으며 유색인종 마약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이미 지원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연방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예산

을 끊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LA한인타운 월서가에 클리닉을 연 의료 비영리단체 미션시티 클리닉(MCCN)은 자체 기금마련에 한장이다. 이 클리닉은 가주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류 미비자에게 메디컬을 제공하자 한인 등 수백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MCCN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컬 제공 예산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대책을 위해 기금 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예산 삭감에 나서면

서 비영리단체가 재정부담 등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한인 비영리단체는 커뮤니티 복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앞세워 연방기관 폐쇄 및 각종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교육, 중독 재활, 의료, 이민자 서비스 관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예산 삭감 예고에 그치지 않고, 이미 일부 비영리단체에 지원 중단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지원을 받은 비영리단체는 당장 재정부담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LA한인사회 대표 비영리단체인

KYCC는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 4개를 중단했다. 지원이 중단된 예산만 수십만 달러이다.

송정호 관장은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계약까지 한 상황에서 더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일은 드물다”며 “이미 채용한 직원의 일자리까지 곤란하게 됐다. 정부를 상대로 맞서는 일도 너무 힘들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한인타운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사라진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MCCN의 LA한인타운 클리닉 마크 이 디렉터는 “연방 정부가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컬을 중단할 경우 가주 정부는 부담할 여력이 없다. LA시 등 지방정부에서 서류미비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교황과 불편했지만 트럼프 “장례식 간다”

중동·이민 등 건전이 다뤘지만
가톨릭 신자 멜라니아와 동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참석 계획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가톨릭 신자인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동행할 계획이라면서다. 트럼프는 장로교 신자였지만, 2020년 특정 교파에 속하지 않는 비교파 기독교인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재집권 후 첫 외국 방문지가 그간 여러 현안에서 반복했던 교황의 장례식장이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사람은 단순히



21일 백악관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조기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스타일 이상의 면에서 의견을 달리했다”며 “한 사람은 교황의 상징인 빨간 구두와 화려한 관저를 거부하고 바티칸 시국의 공동숙소에서 검소하게 살

면서 종교적 청빈함을 추구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뉴욕의 고층 빌딩부터 백악관 집무실까지 손대는 거의 모든 것을 금빛 광채로 감쌌다”고 짚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노출된 건 2016년 미 대선 때부터다. 그해 2월 교황은 멕시코 방문 도중 미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약 20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대규모 미사를 집전했다.

교황은 이후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한 방벽을 세우겠다”고 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다리를 놓지 않고 벽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는 “교황이 미국 정치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트럼프가 1기 출범 직전 텔아비브의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교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 원칙을 깨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두 사람의 공식 대면은 2017년 5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집권 1기 첫째 해의순방에서 트럼프는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30여 분간 면담했다. 나란히 찍은 기념사진에서 활짝 웃은 트럼프와 냉엄한 표정의 교황 얼굴이 대비돼 화제가 됐다.

하지만 교황과 멜라니아의 대면 때는 분위기가 달랐다. 당시 교황은 멜라니아에게 목주를 건네며 따로 축복기도를 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흐른 팽팽한 긴장감이 멜라니아 여사로 인해 다소나마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황은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계획을 추진한다면 수치가 될 것”이라며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형구 기자

“의심스럽다” 알몸 수색까지…하와이 간 독일 소녀들 추방됐다 왜

세계 여행을 하던 독일 청소년 2명이 미국 하와이에서 머물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들이 여행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출입국 담당 직원들에 억류됐다가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오스트제 차이퉁에 따르면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약 244km 떨어진 로슈토크 출신인 샬롯 폴(19)과 마리아 레페레(18)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세계 일주 여행을 했다. 두 사람은 뉴질랜드와 태국을 거쳐 지난 3월18일 호놀룰

루에 도착했지만 미국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폴과 레페레는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몇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으며 신체 스캔과 알몸 검색까지 받았지만 결국 미 세관 국경보호국(CBP)로부터 입국 거부와 추방을 통보받았다.

레페레는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우리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독일 국민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매우 순진했고 무



세계 곳곳을 여행하던 독일 청소년 2명이 하와이에서 머물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데일리비스트 캡처]

력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와이 언론 ‘비트 오브 하와이’는

“CBP 직원들은 2명의 독일 10대 여성이 하와이에 5주간의 체류하러면서도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불법 취업 의도를 의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폴은 “그들은 우리가 하와이에 5주 동안 머물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것을 수상쩍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태국과 뉴질랜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행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갑을 차고 녹색 죄수복을 입은 채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다른 수감자들 옆에 있는 유치장에 수감돼 곰팡이가 핀 매트리스에서 밤

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3월19일 수갑을 찬 채 호놀룰루 국제공항으로 돌아온 이들은 일본 도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체포된 지 3일 후 도쿄와 카타르,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로슈토크로 돌아왔다고 오스트제 차이퉁은 보도했다.

독일 외무부는 이들 10대 여성 2명의 사건에 영사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ESTA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승인은 도착 시점에 국경 관리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사내 기자

트럼프 지지율, 취임 후 최저 42%… ‘3선 도전 반대’ 75%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백악관 복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4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현지시간)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2%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조사에서 기록된 지지율 43%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지지율은 47%였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피로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83%는 “대통령은 원하지

않더라도 연방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갇단 조직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추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퍼스 내 반(反)이스라엘 시위 등을 이유로 대학 예산을 삭감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

이 많았다.

응답자 57%는 대통령이 대학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해당 대학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 응답자 66%는 대통령이 국립박물관이나 극장과 같은 문화기관을 직접 통제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공연예술의 산실 역할을 하는 케네디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이사회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충성파를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가 46%로 찬성(45%)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59%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 4명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3선을 시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대해서도 공화당 지지자들도 53%가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정재홍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라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40

300m

미라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만약 MAGA 모자 안 썼으면”...日 굴욕? 아베식 전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넨 모자를 옆에 던져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쓰지 않았으면, 트럼프가 화를 내고 자리를 뒤흔들지도 몰라요.”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일 관세협상에서 취한 행동은 최대한의 ‘방어 전략’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열린 미·일 관세협상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예상치 못한 두 장면에 직면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그리고 정면에 앉아 있는 트럼프에게서 선물을 받은 일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대선 슬로건이 적힌 빨간색 모자를 받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카메라 앞에서 그 모자를 쓰고 환한 미소와 함께 두 엄지를 들어보였다.

2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선 이 장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상징인 모자를 일본 각료가 쓰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비판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선물 받은 모자를 바로 써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트럼프의 2기 정권 출범에 즈음해,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접명한 건 아베 신



지난 16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 백안관=지자통신]

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 기록이었다. 전화 회담을 포함해 약 40회에 달하는 회담 기록에는, 때때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스럽게 목소리를 높인 장면도 기록돼 있었다. 아베 전 총리는 “특정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일은 삼가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런 (원색적인) 비난을 자제하면, 일본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하려 할 것”이라며 달래는 장면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 것이다. 각별히 주의한 것은, 절대 언론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모자

를 쓴 것도, 이러한 치밀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인지, 16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제안 없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안정적으로 다음 협상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도, 일본은 ‘아베 방식’으로 대응하며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평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첫 협의에서 미국 최고 지도자의 생각을 알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를 상대로 잘 활용한 또 하나의 무기는 ‘투자 지도’였다. 그는 정상회담 때마다 일본에서 정

계간 미국 국내 지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줬다. 지도에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 각 주에 투자한 규모와 고용 창출 상황이 수치로 세세하게 표시돼 있었다. “일본은 미국의 넘버원 투자자”라고 어필하고, 정상회담 때마다 “도널드가 대통령이 된 덕에 일본 기업의 투자가 이렇게 늘었다”고 치켜세웠다. 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가 ‘잘 보면, 러스트벨트(쇠락한 산업지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습니까?’라고 설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군’이라며 수긍했다”고 회상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투자 지도 전략’은 그대로 따라 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아베 전 총리처럼 지도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관세 폭탄’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미·일 무역마찰이 심했던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자주 만나고, 반복해서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정부는 다음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첫 협의에서는 미국이 단기 해결을 바라는지, 아니면 추가 관세 발동 유예

기간인 7월 9일 이후의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즉각 자민당 내부에서는 쌀 수입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월 20일 투개표가 유력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인 농업 관계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기회에 농업 시장 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일본의 농업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선거 일정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도 고심했다. 트럼프 1기 정권 당시인 2019년에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미·일 무역협상이 열렸다. 2019년 5월, 일본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TV카메라 앞에서 “8월에는 좋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도 합의했다. 사실, 이는 아베 전 총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뤄진 발언이었다. 성과를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선거 전엔 일본도 강경한 태도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 마치 합의에 도달한 듯한 인상을 주는 기술을 구사했다. 실제로 최종 합의는 9월에 이루어졌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2기 정권이었던 아베 전 총리도 똑같이 관세 폭탄을 맞았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미국 관세 조치 대응 협조 해달라” 일본 이시바에 친서 보낸 중국

중국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해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명의의 친서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통해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친서의 구체적 내용과 전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누적 관세 145%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은 보복 조치로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신화=연합뉴스]

로 올랐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중국은 관세율을 올리며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친서를 통해 일본을 자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 체제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기존 통상 정책을 문제시해 왔던 터라 중국 측 요청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는 중국이 자유무역 옹호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와 중국과 대화를 통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립 여당 공명당 사이트 데쓰오 대표는 2박 3일 일정으로 이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공명당 대표가 중국을 찾은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사이트 대표는 이시바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보내는 친서를 중국 측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교황 26일 성 베드로 대성당서 장례식 21일(현지시간) 바티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식이 치러졌다. 교황은 공식 관저인 사도궁 대신 교황청 사제 기숙사인 이곳에서 거주해 왔다. 왼쪽부터 디에고 라벨리 교황청 전례원장, 케빈 패럴 국무차장, 루보미르 웰니츠 의전 담당 사제. 교황청은 교황의 장례식을 26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교황 관은 23일 이곳으로 옮겨진다.

[연합뉴스]

맛있는 음식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음식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은 하이, 프로스트비들 2025 새상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6. Clifton 상글 \$950,000 방 4, 화 3.5, 차고2, 3,300sqft, 센터빌 하이 새집처럼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	11. 맥클린 콘도 \$485,000 밝고 환한 8층, elevator,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차고2, 테라스 방2, 화2, 1335sqft
2. 캔틀리 하이 상글 \$1,050,000 방 4, 화3.5, 차고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7. 맥클린 하이, 럭셔리 상글 \$2,799,000 방 6, 화 6.5, 6,000sqft, 차고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집, 고품격 디자인, 롱웰우마들, 495/66/267/123/ Old Dominion Dr	12.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3. 캔틀리 하이 상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6, 화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	8. 맥클린 하이 상글 \$2,599,000 방 7, 화 7.5, 6,100sqft, 차고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집, 고품격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웰우마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3. 캔틀리 새타운 펜트 \$3,600 방 3, 화3.5, 차고2, 2,400sqft, 28/50/66/286, wegmans,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4. 센터빌 상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하우스,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4.5, 차고2, 솔라 패널, 6,228sqft	9. 페어팩스 중심 타운 \$825,000 방3, 화3.5, 3000sqft, 236/66/29/50, GMU, 지하와이아웃, 맥, 펜스	14.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유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중 미장원 펜트 \$3,300/m, 1300sqft, 29/66, 7-11점
5. 센터빌 상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4, (매인/ 풀베스) 차고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10. 게인스빌 골프 상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배너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상글 * Open House 4월 27일 (월) 1~3 pm	8277 ROXBOROUGH LOOP, GAINESVILLE, VA 20155 방 4, 화 4.5, 차고 2, 4433 sqft, 2004, 0.3acre, 페리온, 스크린백, 계단 앞는 메인방 방 1, 풀베스 1

바다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매년대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봄맞이 특별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 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신뢰기술·신속 배송·신뢰대인·신속의약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고급,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위건강 멘 매스틱

위건강 멘 매스틱

코엔ZYM 레벤플러스

코엔ZYM 레벤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어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골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장발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농심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강화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

3+1 스페셜 1oz \$45 4oz \$125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기침이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호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화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빼,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생활동력과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설금, 근육, 뇌상

글루타치온 클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글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백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재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부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김·안·한·홍, 국민의힘 4파전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대선 1차경선 ... “1~3위 초접전”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탈락
29일 2차 경선서 2명으로 압축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 4파전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국회에서 2차 경선 진출자 4인을 발표했다.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이번 1차 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21~22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5개 여론조사 업체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을 조사했고, 22일 각 조사 결과를 당 선관위에서 USB로 취합해 합산했다. 후보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에서 실시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다. 본지 취재 결과 1~3위 후보들은 근소한 격차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당 내에선 “사실상 의미없는 수준의 차이”란 얘기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4강행은 유력하다고 봤다. 이날 관심은 마지막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쏠렸고, 당내 기반이 두터운 나 후보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안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안 후보가 4강에 진출하자 국민의힘 인사는 “이번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됐지만, 무당층 응답자에서 안 후보가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이번 1차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당심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했다. 1차 경선은 21~22일 ‘100% 국민여론조사’로 진행됐다.



임현동·김성룡·김경록 기자

(黨心)에서 앞서는 나 후보에게는 불리하고, 안 후보에게는 유리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경선 후보 등록 당시 11인이었던 후보군이 4인으로 좁혀지면서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뚜렷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한동훈 후보의 2대2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2차 혹은 최종 경선에서 누가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치고 나가는 후보가 없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4강부터는 당원투표, 즉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뚜렷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김문수·홍준표 후보가 기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확실히 거리를 뒤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이 보수층에서 퍼지면서 안철수·한동훈 후보가 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자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나 돼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입장을 냈다. 안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국민·당원께 감사하다. 저는 여러 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한 후보도 “우리 당이 하나 돼 이재명 민주당에 맞서도록 저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홍 후보 측은 “4강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뒤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탈락한 나 후보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에 함께 계속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톱 후보가 없는 만큼 향후 토론이나 후보 간 합종연횡에 따라 경선 판세는 요동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24~25일 이틀간 일대일 수도권 토론회를 진행한다. 27~28일에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각각 50%씩 합산해 29일 결과를 공개한다. 당원 선거인단은 약 77만 명 규모다.

29일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인을 추려 다음 달 3일 전당대회 결선투표(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후보를 가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독주 체제인 감동 없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달리 우리 당 경선은 끝까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흥행몰이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후보들은 표심 다지기

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도입, 1인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부모와 젊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공존형 아파트를 청년 부동산 정책으로 내놔다.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언론 인터뷰 등에 집중한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제명을 꺾을 수 있는 죽을 각오의 제갈량이 바로 저”라고 썼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서울 용산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집권 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주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 2년간 여야가 나서는지 않고 정부가 고집을 부려 문제가 방치됐다”고 말했다.

손국희·장서윤 기자

“김건희 선물용” 통일교 전 간부, 건진에 다이아 목걸이 건넸다

검찰, 김 여사에 전달됐는지 수사
전 간부 “3월 22일 윤 봤다” 언급
건진은 “목걸이 잃어버렸다” 진술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전씨를 불러 실제 김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추궁했지만 전씨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 20일 전씨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조사하면서 윤씨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경위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 대한 조사에서 “김 여사 선물 목적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의 순방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에 대한 재산 신

고 누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논란 이후 윤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에 선물할 테니, 빌리지 마시라”는 취지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선물이 윤 전 대통령 부와의 만남 주선, 통일교 사업, 검경 인사와 관련된 청탁 대가가 아닌지를 살피고 있다. 실제 윤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윤씨는 2022년 5월 통일교 공식 행사에서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뵈었습니다. 1시간 독대했습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전씨 휴대전화에 따르면 윤씨가 2022년 12월 전씨에게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를 두고 산업은행 등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하자, 전씨가 “금융권은 윤모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통일교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검경 인사에 대한 이력서가 전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실제로 해당 목걸이를 받았는지도 수사할 전망이다. 윤씨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

혹을 시인했지만, 전씨는 “잃어버렸다”고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통일교 관계자는 “윤씨는 2023년 이후 통일교 업무를 그만뒀다. 윤씨 개인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천 현금 의혹에서 시작된 건진법사의 각종 이권개입 의혹은 통일교 측 급품수수 의혹으로 커지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통령실 인사 개입 등도 수사 중이다.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찬규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습니다.”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장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

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 한 재키 조 조앤 한 세라 정 애나 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메모리얼데이 스페셜

캐나다 퀘벡, 몽트랑블랑,천섬

천섬 크루즈/오저블케이즘/몽트랑블랑 곤돌라
5/23(금)-5/26(월)
3박4일 \$899

대형버스

스모키마운틴

딕시시스템 디너쇼/루비폴/락시티/스모키마운틴
5/24(토)-5/26(월)
2박3일 \$899

VIP버스로 뉴욕 1박2일

뉴욕+엣지전망대,케이프 메이 페리 여행,특식
5/25(일)-5/26(월)
1박2일 \$425

워싱턴 최초 30인승 밴즈 VIP 리무진 버스

한스 단독 미동부 투어

8명 이상 출발가능

뉴욕 1박2일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목 출발가능 **5/19 출발확정 \$650**
추석맞이 10/6 모집중!

나이아가라, 뉴욕&브루클린 3박4일
수 출발가능 **5/7 출발확정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 출발가능 **7/28 마감! \$1,350**

당일투어
3명 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루레이동굴 \$125

볼티모어 출발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바하마 크루즈

2026년 1/16(목)-1/24(토) 8박9일
인솔자 동행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미서부 연합 투어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항공 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항공 불포함

캐나다 록키 5박6일
\$1,190항공 불포함

알래스카 6박7일
월요일 출발 \$1,650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2명 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300항공 불포함 [월요일 출발]

고국의맛!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15(수)-10/25(토) 모든 옵션 포함!!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11일 \$2,990
제주불포함 내륙일주 8박9일 \$2,390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교포연합 고국일주 9박10일 \$2,350	서남권 3박, 제주 2박, 제주 동해 6박 등 원하시는 지역만 선택투어 가능, 항공불포함
교포연합 내륙일주 6박7일 \$1,590	

“한국갈때 동남아 알뜰여행”

- 베트남 하롱베이 3박 \$750
- 베트남 다낭 3박 \$450
- 방콕 파타야 3박 \$490

항공 불포함

- 싱가폴 3박 \$850
- 대만 3박 \$690
- 홍콩 2박 \$550

항공 불포함

한스 프라이빗 투어 (8분 이상 가능)

나한테 맞는 맞춤 여행, 한스가 만들어 드립니다.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투어로 가는 딜럭스 투어.

- ✓ 포르투갈 골프 + 투어 8박9일 골퍼들의 천국, 유럽의 골프 명소, 포르투갈 알가르베 골프와 여행.
- ✓ 터키 안탈리아 골프 + 투어 8박9일 지중해를 끼고 환상의 골프 리조트에서 골프 플레이와 이스탄불 투어를 함께.
- ✓ 스코트랜드 및 하이랜드 스카이 섬 트레킹 11박12일
- ✓ 과거로 가는 쿠바 여행 6박7일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4/29(화)-5/9(금) 서유럽3개국 10박11일	마감
5/4(일)-5/16(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마감
5/28(수)-6/9(월) 알프스 파노라마	마감
6/3(화)-6/15(일) 코카서스3국 12박13일	마감
6/10(화)-6/19(목) 알프스 하이лай트 9박10일	마감임박 \$5,095 재키 조
7/1(화)-7/14(월) 북유럽+발틱 13박14일	여성 싱글 룸메이트 마감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마감
8/1(금)-8/15(금) 아프리카 + 볼루 트레일 14박15일	\$16,400 조앤 한
8/1(금)-8/13(수) (케냐,빅토리아폭포,남아공)	마감임박
아프리카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12박13일 \$12,900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12,900
8/7(화)-8/11(월)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재키 조
8/10(일)-8/16(토) 그린랜드 6박7일	\$5,950
8/13(수)-8/19(화) 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마감임박
알래스카 6박7일	항공포함 \$3,090 세라 정
9/8(월)-9/21(일) 중앙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9/8(월)-9/17(수) 우즈베키스탄 9박10일	\$3,990
9/14(일)-9/24(수)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9/20(토)-9/28(금) 이스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4,995 재키 조
9/30(화)-10/13(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동유럽 & 크로아티아,폴로미티 13박14일	\$4,890
9/30(화)-10/7(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애나 김
동유럽 7박8일	\$2,890
10/6(월)-10/13(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폴로미티 7박8일	\$2,990
10/9(목)-10/18(토) 볼티모어 출발	마감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9박10일	인솔자
10/9(목)-10/19(일)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10/15(수)-10/25(토) 가을,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2,990 인솔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11/6(목)-11/18(화)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5,490 조앤 한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알펜투어 +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11/11(화)-11/20(목) 카이로,مم피스,아스완-아부심벨-아스완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090 데이빗 한
11/26(수)-11/30(일) 땡스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항공포함\$2,090 세라정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3박14일	\$6,590 재키 조
12/1(월)-12/12(금)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12/1(월)-12/7(일) 쿠바 6박7일	\$2,987 조앤 한

2026년 1/29(목)-2/8(일) 신비의 인도여행 10박11일 1/29(목)-2/10(화) 조앤 한

인도+두바이 12박13일 1/16(목)-1/24(토) 바하마 크루즈(볼티모어 출발)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인솔자

2/3(화)-2/8(일)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항공포함\$2,190 세라 정

2/10(화)-2/23(월) 남인도+스리랑카 13박14일 2/14(토)-2/23(월) 조앤 한

스리랑카 문화탐방 8박9일 2/17(화)-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2/25(수)-3/5(목) 페루 일주 8박9일 재키 조

3/5(목)-3/15(일) 파타고니아 10박11일 재키 조

3/5(목)-3/19(목)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3/23(월)-4/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여행 9박10일 조앤 한

3/30(월)-4/11(토) 일본 맛여행 + 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재키 조

4/12(일)-4/18(토) 고국의 봄, 남해 맛 기행 6박7일 재키 조

4/12(일)-4/21(화) 고국의 봄, 남해 맛 기행 +제주도 9박10일

4/20(월)-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조앤 한

4/26(일)-5/6(수) 시실리 섬 + 몰타 10박11일 재키 조

5/24(일)-6/4(목) 알프스 파노라마 투어 11박12일 재키조

6/14(일)-6/25(목) 아일랜드 & 스코틀랜드 11박12일 조앤한

김경수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⑥⑦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문재인이란 거인의 어깨 위에서 국정 경험을 쌓았던 건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찬탄 보수세력도 연정 대상 목표가 2등인 선거는 없다”

문 정부, 촛불혁명 세력 참여시켰어야
‘빛의 연대’로 함께 손잡아야 갈등 치유
비전·정책 경쟁으로 국정운영 신뢰 쌓길
지방분권 실현시켜 부동산 문제 해결

김경수(58)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계엄 이후 갈등과 분열이 너무 깊어져 특정 정당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탄핵에 함께한 다른 정당, 시민사회와 ‘빛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응원봉을 든 모든 세력이 뭉쳐 위기를 극복하려면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경수가 적임자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구상하는 ‘빛의 연대’의 대상에는 진보 진영 내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은 물론, 보수 진영 내 찬탄 세력도 포함된다. ‘김경수관’ 대연정 구상인 셈이다.

그는 19~20일 경선에서 누적 득표 5.17%로 김동연 후보(5.27%)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 중이다. 김 후보를 21일 서울 영등포구 캠프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빛의 연대’ 구상의 뿌리는.

“촛불혁명 세 세력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지 못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 인수위원회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부터 이들과 함께 했어야 했다. 이번에는 빛의 혁명 과정에서 동참한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가 국정 운영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갈

등을 치유할 수 있다.”

-계엄과 탄핵의 제도적 수습책으로 강조하던 개혁을 경선 이슈로 꺼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책임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를 하고 있다. 이들과 개혁 논의를 한다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국민의힘 스스로 헌법 수호 세력이자 민주주의 세력임을 증명해야 개혁 논의가 가능하다.”

-‘내란 종식’이 ‘정치보복’의 새 프레임이 될 거란 우려가 있는데.

“내란 종식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과제다. 정치보복과는 전혀 다르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처벌을 정치보복이라고는 안 하지 않나.” 지난 18일 TV토론에서도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지 않았다. 정책 어젠다를 설명하고는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장면이 반복됐다.

-‘착한 2등’ 전략인가.

“2등을 목표로 하는 선거는 없다. 출마할 때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정치적 목표가 있는 거다. 민주당에 유력 주자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싸움만 하면 정책과 비전은 언제 전달하냐.”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실패로 평가된다. 자율적 재정권을 주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강보현 기자

김경수 후보 8대 핵심 공약

- 대한민국 5대 성장축, 초광역 자치정부 수립
-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녹색산업 육성과 에너지 시장 혁신
- 지역대학연합이 만드는 인재공화국
- 절대빈곤 ZERO,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 돌봄인구 비례 공공SOC 확충, 돌봄메시지 제도
- 대통령 결선투표제, 초광역비례대표 도입
- 장·모병 혼용제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개혁하겠다는 건 모두 구두 선언에 그쳤다”며 조속한 개혁 의사를 밝혔다. 임현동 기자

“부총리 때 트럼프 3번 만나 경제위기도 3번 극복했다”

조선·반도체·방산산업 한국우위 활용
미국과 패키지 딜 대신 살라미 협상을
세계 전·현직 지도자들과 네트워크 강점
기재부·검찰은 기능·권한 분리 개편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68) 후보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 파고(波高)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친 지금 시대 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자신을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로 각종 위기를 극복한 경제 최고 전문가”라고 표현했다.

현직 경기지사인 김 후보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시중은행에 입사한 뒤 야간대를 다니며 입법·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입지전적 인물이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민주당 경선 룰에 대해 비판해 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틀림없다. 그동안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자 자량이었던 국민경선제를 뒤집는 경선 규칙을 정했다. 아쉽지만 당원이 결정한 만큼 당당하게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先) 내란 종식, 후(後) 개혁을 말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발동 요건의 강화는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한다.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춰 임기를 2년 단축해 3년

만 하는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란 종식이 정치보복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권 교체가 되면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세력과 함께하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과는 대화하고 통합할 수 있다.”

-트럼프와의 협상은.

“경제부총리 시절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세 번 만났다.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터프가이처럼 보이지만 아주 전략적이고 영리하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못하는 조선·반도체·방위산업의 우위를 갖고 당당하게 해야 한다. 의제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는 패키지 딜은 위험하다. 주제 하나하나를 잘라 협상하는 살라미 작전으로 가야 한다.”

-‘친정’인 기획재정부 개혁을 내걸었다.

“제 친정이지만, 해체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 ‘재정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돈 거두는 재정·세입과 경제 운용하며 돈 쓰는 세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중앙정부에도 재정 권한이 너무 집중됐다. ‘재정 연방제’ 수준으로 재정 분권이 돼야 비수도권이 산다.”

-검찰 개혁도 공약이다.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야 한다. 초임 검사의 3급 대우도 5급으로 정상화하겠다. 부장급 이상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고, 5년간 대형 로펌 취업을 금지하겠다.”

김나한 기자

김동연 후보 8대 핵심 공약

- 대통령, 책임총리·책임장관 공동 운영
- 행정고시 폐지, 민간 개방형·공모형 채용 확대
-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 10대 대기업 경제 도시 건설
- 비정규직 계약 기간 5년으로 확대
-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 남성 중심 징병제
→ 여성·민간 인력 포함한 모병제 확대
- 비동의 강간죄 개정

1석5조 통합보험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생명보험 (Life Insurance)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주택·비즈니스 융자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메디케어 (Medicare)

바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바지니아 (리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대법 전합’ 회부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조 대법원장이 결정

〈전원합의체〉

사건 배당 2시간 만에 다시 회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 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리게 됐다.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합 회부 결정을 직접 한 뒤 오후에 곧바로 전원합의체기일을 열어 첫 심리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오경미·권영준·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공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2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알렸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3명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부다.

법원조직법 등에 따르면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을 전합에 회부한다.

이날 전합 회부는 이 전 대표가 전날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

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여기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 등 다른 대법관이 건의해서 결정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유력 대선 주자 재판을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회피를 신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첫 기일을 열어 심리에 속도를 내지만 통상 대법원 소부에 비해 전합 심리가 오

래 걸려 6·3 대선 전 상고심 결론이 나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로 전합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지만,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건”이란 말도 나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본인이 참여하는 전합에 바로 회부한 것을 보면, 조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전합이라고 심리가 길어진다는 필연성은 없다”고 했다.

김준영·최서인 기자

문 정부가 접었던 공공의대 설립, 이재명 다시 꺼냈다

이 “사회적 합의로 의대정원 합리화” 구체적인 규모·방안은 언급 안 해 공공의대, 의료사관학교 형태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공개한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 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 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나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었으나, 의료인력 수급체계위원회에 맡겨 타협안을 끌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00명을 증원에 서서히 늘려간다는 2020년 정책 방향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적했다. 이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의료갈등 장기화를 비판하며 정책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메시지

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보 재

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놔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했다. 공공

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 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 대통령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더 늘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날 이 후보가 제시한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문기관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양성 트랙 자체를 다르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의대 역할을 포괄하고, 기존 의사들과 면허 제도를 달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후보는 24·25일 전북·광주·전남을 잇따라 방문한다. 26일 순회경선 행사가 열리는 호남권엔 민주당 전국 관리당원 112만 명 중 33%인 37만 명이 몰려 있다. 충청권·영남권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한 이 후보가 호남에서도 ‘구대명’(90% 득표율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달성하며 판세를 굳히는지가 관심이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경선에서 5연승을 달리던 도중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0.17%포인트 차로 패했다.

이예스터·조수빈 기자

이재명 ‘보수 논객’ 조갑제·정규재와 만찬 … “진영 넘어 소통”

이 ‘인사 폭넓게 하는 법’ 등 질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진영 밖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규정하고 우클릭

정책들을 쏟아낸 데 이어 인적인 접촉 면도 오른쪽으로 넓히는 모양새다.

복수의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합리적 보수 진영 인사들과 사석에서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이 후보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조 대표와 정 주필은 대표적 보수 논객이지만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정 주필은 통화에서 “진영을 넘어 소통하고, 함께 나라를 걱정하자는 의미의 자리였다”며 “이 후보가 소위 ‘꼰대보수’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슴속 화를 어떻게 다

스리느냐’는 정 전 주필의 질문에 “검찰 기소를 세 번이나 당했고 지금도 재판 받고 있지만, 1~2년 새 화를 많이 극복했다”며 “하도 시달리다 보니 이제 으레 그런가 보다 한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 강이나 바다 같은 자연물로(고난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이들에게 “인사를 폭넓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는 질문도 했다. “전직 대통령의 파면과 별개로 차기 정부에서는 합리적 보수 진영의 인물들까지 국정에 폭넓게 화합해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광복 행보에 대해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보수층 자체를 흔들지는 못해도 중도층의 거부감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세롬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애난데일 싱글홈 \$880,000	버크 싱글홈 \$1.25M
방3, 화3, 0.46 에이커 굿 로케이션 새지붕, 울수리한 집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숲이 아름다운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비 이민비자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당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20년, 한국선 ‘극단튜브’ 됐다

본지·이데, 알고리즘 추천성향 분석
유사언론 추천, 전통언론의 3배
정치무관심층에도 정치 영상 노출
“극단 여론 등 부작용 줄일 대책을”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탄핵 규탄 집회’ 현장에서 만난 이모(71)씨는 시간 날 때마다 관련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 탄핵이자 억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에게 요청해 그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니, 보수 성향 정치 채널인 ‘손상대TV2’와 ‘배승희 변호사’ 채널 등이 유튜브 앱 화면 최상단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정치 소식은 대부분 유튜브에서 본다”며 “맞는 말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씨가 보여주는 유튜브 내용 중 상당수는 편향이 심하거나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들이었다.

유튜브가 23일로 서비스 20주년을 맞았다. 중앙일보는 유튜브로 인해 한국 사회의 정치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화여대 윤호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연구팀과 함께 유튜브 알고리즘의 콘텐츠 추천 성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튜브는 정치와 전혀 무관한 키워드를 주로 검색한 ‘정치 무관심’ 계층에도 정치 콘텐츠를 적극 추천했다.

또 전통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한 유사 언론 정치 채널을 추천한 빈도가 크게 높은 것으

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는 유튜브 검색 기록이 없는 ‘백지 계정’에 성별, 연령별 관심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 추천한 정치 콘텐츠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손상대TV2’ 채널 같은 유사 언론을 전통 언론보다 2.7배 더 많이 추천했다. 총 2164건 정치 채널 콘텐츠를 추천했는데, 이 중 1580건(73%)이 유사 언론 채널이었다. 전통 언론 콘텐츠 추천은 584건(27%)이었다. 또 유튜브는 정치 콘텐츠를 검색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정치 콘텐츠를 적극 노출했다. 입력한 관심 키워드 360개 중 정치 관련 키워드는 2개(이재명 무죄 탄원, 명태균 프로필)밖에 없었지만, 유튜브는 649회에 걸쳐 정치 콘텐츠를 추천했다.

윤호영 교수는 “유사 언론 채널이 자주 노출되는 인프라가 유튜브에 구축

된 것”이라며 “기존의 신념이 더 강화되는 ‘에코 챔버 효과’가 나타나기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 알고리즘은 정치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아도 나이, 성별에 따라 유사한 그룹이 즐겨 보는 정치 채널을 추천하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알고리즘의 이 같은 추천 성향은 유튜브와 유사 언론 채널 제작자 간 수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사 언론 채널은 자극적 영상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튜브 생태계를 장악하고, 유튜브는 이용자 체류시간이 긴 유사 언론의 정치 영상을 자주 노출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식이다. 윤호영 교수는 “유튜브는 이용자 체류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 가능성이 큰 영상이라면 채널을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또 이용자의 검색 내역을 바탕으로 연령과 성별을 추정해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치 채널

을 추천하기도 한다. 연구팀이 지난해 11월 35~39세 남성들의 관심 키워드였던 ▶도지코인 ▶네이버 넷플릭스 ▶신생아 특례대출 등 키워드를 입력해 추천 채널을 수집해 보니 ‘김어준’ 채널(29회)을 가장 많이 추천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50~54세 남성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트럼프 관련주 ▶내장산 단풍 ▶필리핀 골프 투어 등을 입력했을 땐 보수 성향의 ‘손상대’ 채널(8회)을 가장 많이 추천했다.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의 개인화로 사회 전체 미디어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차원에서 오히려 더 좁아졌다”고 말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세대별, 성별 소통을 막고 갈등을 조장할 우려를 키운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이 같은 작동 방식이 정치 여론의 극단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우영 대구카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00여 개에 이르는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의 90% 이상은 친윤 또는 친이 채널”이라며 “이런 유사 언론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은 정치적 성향도 이 채널의 성향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신 교수는 “유사 언론 채널을 매개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실제와 달리 주변에 극단적 성향의 사람이 많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구글 코리아) 측은 정치적 관점에 따라 영상을 추천하거

나 필터링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시스템은 800억 개 이상의 신호를 학습해 시청자가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콘텐츠를 찾도록 끊임없이 진화한다”며 “특히 뉴스와 정보 콘텐츠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콘텐츠를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편향성 문제를 유발하는 플랫폼에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유튜브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을 육성해 극단적 여론 형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원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바꾸라고 강제하기 어렵다”며 “유튜브 추천 시청 이력 수집을 거부하는 등 알고리즘에 의한 극단적 콘텐츠 추천을 피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연구팀은 유튜브 검색 기록이 없는 ‘백지 계정’에 연령대·성별 단위로 나눈 18개 집단별 관심 키워드 20개(2024년 11~12월 온라인 관심 키워드 기준)를 차례로 입력했다. 이후 계정별로 나오는 첫 화면에서 추천한 정치 채널 콘텐츠를 수집해 분석했다. 연구팀은 신문방송법에 등록된 언론사 채널의 경우 전통 언론, 아닌 경우 유사 언론으로 정치 채널을 분류했다. 계정당 검색은 50회 반복했다. 분석은 지난달 24~28일 진행됐다.

강광우·김민정 기자



유튜브 추천 정치채널 특징은… 얼굴 강조, 노란 자막, 자극적 제목

중앙일보가 이화여대 윤호영 교수 연구팀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높은 빈도수로 추천해 준 유사 언론 채널들은 의견상 두드러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영상의 섬네일(미리보기 화면)이 한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유사했다.

대부분 진행자나 출연진 또는 정치인들 얼굴을 강조하는 형태를 띤다. 제목은 크고 굵은, 주로 노란색 글씨로 단정적이거나 의문문 형태로 단다. 또 ‘충격’ ‘역대급’ ‘속보’ 등의 단어나 느낌표(!) 사용도 유튜브가 선호하는 제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채널 운영자들

이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유튜브가 선호하는 최적의 섬네일을 찾아내기 때문에 섬네일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브 방송을 자주 운영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치톡소리’ ‘정치한방’ 등 진행자가 직접 출연하지 않는 채널도 자료 영상 등을 짜깁기

해 틀어놓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자막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 윤호영 교수는 “유사 언론 채널들은 정치적 색깔과 무관하게 조회 수를 늘리고 많은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영상 복제 공장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알고리즘과 콘텐츠 생산자 모두 ‘수익 극대화’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정치 과잉·편향을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소비 지형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튜브 백과』의 저자 김남훈 훈미디어 대표는 “유사 언론 채널들은 이용자 체류 시간이 길고, 수퍼챗이 활발해 모두 원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강광우·김민정 기자

“안식하시길”… 명동성당 빛속 조문행렬

마지막 인사 건네려는 신자들 몰려
주한 교황대사관에도 분향소 마련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길, 아프지 않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고 기도했어요.” 2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 성당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나온 김재현(29)씨가 말했다. 종일

비가 내렸지만,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는 신자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아침부터 성당을 찾았다가 오후 3시에 공식 분향소가 열린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명동대성당 외에도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주한 교황대사관에도 공식 분향소가 마련됐다.

명동대성당 분향소 앞에는 150여 명의 긴 줄이 늘어섰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거나 40분간 진행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입장한 신자는 “분향소 열리기 3시간 전부터 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출구 앞에 서서 우는 이들도,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온 모습도 보였다. 대구시에서 왔다는 박모(23)씨는 “영면에 드실 수 있도록 기도드렸다”고 말했다. 2014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교황을 만났다는 신자도 자리했다. 서울 중구에서 온 김모(70)씨는 많은 목주를 손에 쥐고 “어제 SNS를 통해 소식을 접했는데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언론 보도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오전 7시 미사를 마치고 나온 박모(55)씨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하고, 신앙의 진리를 수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을 이어받

아 좋은 분이 선회되길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전했다.

명동대성당 분향소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인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조문했다. 재량에 따라 교구별로 낱짜와 장소를 정해 추모 미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최혜리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매매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 화장실3.5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렌트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철타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톤다 콘도 방2 +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명의 한 명이 전국 소아암 환자 돌보듯... ‘표준 치료법’ 결실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희귀병·소아암 어린이에 희망을

매년 250명 진단, 국내 소아암 최다
그간 항암제·투약 일정·검사제각각

“전국 어디서 치료받든, 결과는 같아야 한다.”

급성림프모구 백혈병(ALL) 치료의 ‘한국 표준’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은 소아암 의사들의 첫걸음은 이렇게 당연하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에서 시작됐다. ALL은 국내 소아암 중 가장 흔한 암이다. 매년 250명이 새로 진단받는다. 이전에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의 항암 치료법을 가져다 썼다. 병원마다 항암제 종류, 투약 일정, 검사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같은 병을 앓더라도 치료 결과가 다른 일이 생겼다. 치료법이 다르다 보니 결과를 분석하고 비교하기 쉽지 않았다.

관련 학회가 치료법 통일을 시도했지만, 참여 병원 수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단비를 만났다. 고(故) 이

건희 전 삼성 회장 기부금이다. 이 전 회장 유족이 지난 2021년 소아암·희귀병 극복에 써 달라고 서울대병원에 기부한 3000억원이 마중물이 됐다. 전국 소아암 명의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신 임상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한 끝에 2023년 9월 한국의 ALL 표준치료법이 마련됐다. 환자들을 표준위험군·고위험군·최고위험군·영아군·재발군으로 분류해 각각 최적의 치료법을 만들었고, 정부 허가를 거쳐 진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연구의 핵심은 서울·지방의 병원 네트워크다. 서울과 지방 주요 병원의 소아암 명의들이 연구에 참여한다. 전국 병원이 환자의 골수 등 검체를 보내면 전장유전체 분석(WGS) 등 정밀검사를 하고 진단검사 전문가의 해석을 담은 결과지를 보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연구에 참여 중인 백희조 화산전남대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는 “환자의 골수로 시행하는 암세포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치료 강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화산전남대병원 내 ‘여미사랑 병원학교’에서 초등생 소아암 환자들이 선생님, 의료진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병원이 공간을 마련하고 화산교육지원청이 지원한 학교에서 학생들은 치료 중에도 학업을 이어나간다. 백희조 교수는 “완치 이후의 삶을 고려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데 큰 도움이 된다. 훨씬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검사로는 파악할 수 없던 암의 성격을 찾아내 치료 강도를 조정하거나 조절호르몬 이식 여부까지 판단한다. 소아청소년과·진단검사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가가 모이는 비대면 콘퍼런스도 연다. 백 교수는 “결과지를 보고

의문 사항이 생길 때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항암 치료 때마다 1만분의 1개까지 미세하게 남은 암세포를 확인하는 미세잔존암 검사(MRD)도 이뤄졌다. 치료를 얼마나 더 이어갈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검사다.

백 교수는 “현미경으로 골수 속 암세포를 확인하는 기존 검사 방법보다 100배 이상 정밀한 검사”라며 “기부금 덕분에 환자 부담 없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시작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백 교수는 “소아암은 환자가 적다 보니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표준위험군 연구를 이끄는 주희영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표준위험군 기준 국내 ALL 환자의 완치율은 90%에 육박하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 3~5% 포인트 뒤져있다”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미국에선 1960년대부터 표준 치료법 연구를 이어왔고, 소아암 완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라며 “10년간 국내 환자에 같은 치료를 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치료법을 개선해나간다면, 완치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스더 기자

동네마트 흥기 난동... 장 보러 간 60대 여성 숨졌다

미아역 인근...마트 직원도 부상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환자복을 입은 30대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장을 보던 60대 여성이 1명이 사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현장에서 남성 A씨(33)를 검거해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0

분쯤 소규모 마트 안에서 60·40대 여성 두 명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40대 여성은 마트 직원이었다고 한다.

60대 여성 피해자는 중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밤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혐의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40대 여성 직원은 비교

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범행과는 상관없는 상처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마트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해있던 환자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날 오후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흥기로 찔려 누군가 쓰러져있다”는 취

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지만 살인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에 입원했는지, 정신 병력이 있는지 등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주취 상태였다는 것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트에서 판매하던 칼을 포장지를 뜯은 뒤 휘둘렀

신혜연 기자

뾰뾰한 늙은나무, 작은 불로 확 번진다...“나무도 세대교체를”

지난달 영남 지역을 휩쓴 ‘괴물 산불’이 진화된 지 얼마 안 된 이달 2일 찾아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옥광산은 수령 50년 넘는 활엽수들이 서로 기대듯 기울어 뾰뾰하게 숲을 채우고 있었다. 산불이 나면 연료가 되는 마른 가지와 덩굴류가 나무를 휘감은 모습이었다. 동행한 산불·방재 전문가 채희문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작은 불씨만 있어도 확 번지고, 불길이 나무줄기와 이파리를 타고 확산하는 수관화(樹冠火)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옥광산에 처음 조림사업을 시행할 당시 1ha당 약 2500그루 비율로 나무를 심었다. 이후 애지중지 키우고 보존해 왔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



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은 우리 숲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으로 중년에 해당하는 4급(31~40년) 이상 나무가 산림 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도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는 셈

이다. 산림 당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무를 ‘심기만 하는 정책’에서 솥아베기와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숲을 이루는 나무를 세대 교체하고, 간격과 종류를 조

정하는 게 핵심이다. 산지에 개설하는 도로인 ‘임도’를 내기도 한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효과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옥광산 초입에서 차로 15분가량 산속으로 들어가니 산림청이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나왔다. 이곳엔 낙엽송이 6m 간격을 유지하며 곧게 뻗은 채 자리하고 있었다. 오는 길에 구역에 따라 전나무·층층나무 등 다른 수종이 심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채 교수는 “이렇게 나무를 솥아줘야 산불이 나도 빠르게 끌 수 있고 병충해 위험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2000년대 들어 옥광산숲가꾸기 구역에서 7~8년마다 나무의 30%가량을 벌채했다. 옥광산 전체 국유림 면적 1080ha 중 354ha(32.8%)가 대상이다. 황판수 춘천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장은 “최적의 숲을 만들기 위해 1ha당 몇 그루가 적정인지 고민해 잘라내면서 우량한 나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숲 가꾸기는 나무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 이날 옥광산에 이어 찾은 강원도 홍천의 국유림에도 수령 50년 정도의 잣나무가 널찍한 간격을 두고 자라고 있었다. 불과 30m 떨어진 사유림에 심어져 있는 비슷한 수령의 잣나무에 비해 확연하게 나무 지름이 굵었다. 지난 30~40년 동안 병들고 노쇠한 나무들을 솥아내 나무들의 간격을 5~6m가량으로 벌려준 덕분에 충분한 양분과 햇빛을 받은 결과다. 산림청에 따르면 잣나무 15년생을 솥아베기한 곳에선 10년간 나무 지름이 14cm 더 자라지만, 솥아베기를 안 한 곳은 5cm를 자라는 데 그친다.

서지원·박종서 기자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호프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능,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상담인사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주요 서비스
▶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목	매매 및 렌트	사업체 매매
1610 Westmoreland Ct, McLean, VA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델라샵(DC)
\$1,999,900	\$970,000	\$150K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1474 Hampton Hwy, McLean, VA	
\$501,000	\$1.3M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1.2M		
10** Salt Meadow, McLean		
\$2.73M		

갤럭시부동산

주소	기간	세입자
페어팩스 지역 볼-어름 나을 집 렌트 리스팅 50여채 있음	4/1-7/31 입주 가능함 집	\$1,800-\$5,200 가격대 렌트 리스팅,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올 어름에 파견 나을 주재원 6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6월 말~8월초 입주 희망	\$2,000~\$5,500 가격대 렌트
3618 Cantrell, Fairfax, VA	2년	크레딧 좋은 Non Korean 가족
6406 Hawk View Ln, Alexandria, VA	2년	크레딧 좋은 Non Korean 가족
9411 Myra Dr, Great Falls, VA	3년	비교적 잘 좋은 조건이지만, 주인측 에이전트와 오랜 거래 덕분에 수 많은 경쟁 신청자 불고 튼튼, 주인 말, 에이전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곧바로 상임임대라고 함. 역시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 주재원
4658 Braddock Green Ct, Fairfax, VA	3년	3년째 신장자만, 오랜 노하우로 튼튼, 주재원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마켓에 내 놓지 않고 영상으로 보유하고 계약 완료, 국/미/가
1042 Warbler Place, McLean, VA 2/14/2025 입주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한국에서 영상보고 3년 렌트임, 주재원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독점

Annandale 타운홈

집 전체 완전히 리모델링한 밝고 예쁜집,
부엌, 화장실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 함,
교통 편리,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단지

\$61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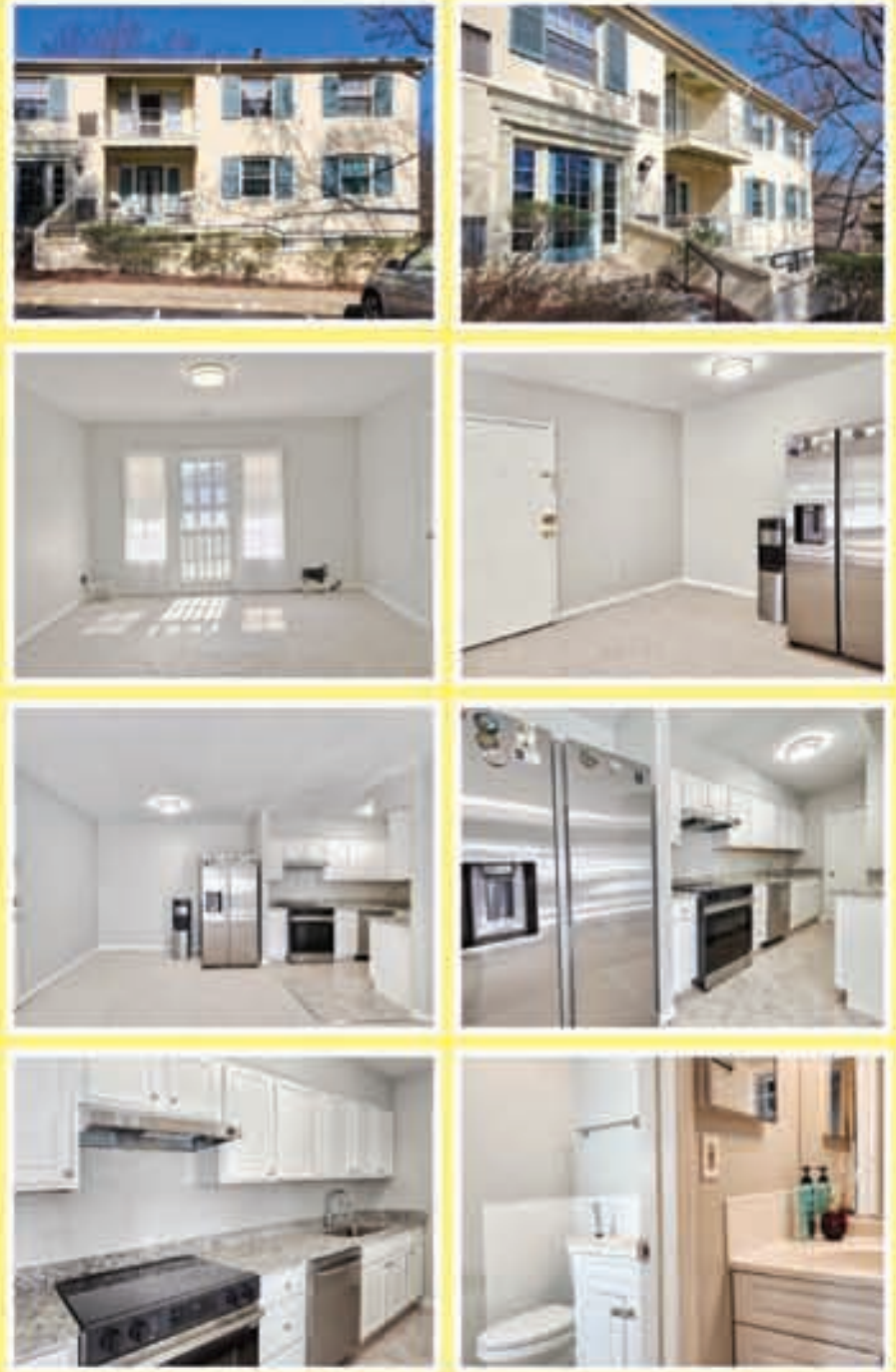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 2, 화 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64,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 2, 화 2, 새 카펫, 새 페인트,
탁 트인 구조, 넓은 리빙룸,
발코니 2

\$375,000



독점

Annandale 콘도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깝음

\$2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우리말 바꾸기

‘햇나물’과 ‘해썩’

봄에는 ‘햇것’들이 가득하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할 때도 있지만 들판에는 새로 나온 썩이 머리를 내밀고, 나무에는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매년 돌아오는 모습이지만 새롭게 자라나는 것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싱그럽게 한다.

“봄에는 햇나물로 비빔밥을 만들어 보자”에서 쓰인 ‘햇나물’과 같이 ‘해마다 나는 물건’으로서 그해에 처음 나오는 것’을 가리킬 때 보통 접두사 ‘햇-’을 붙인다. ‘햇나물’ 외에도 ‘햇가지’ ‘햇과일’ ‘햇감자’ ‘햇곡식’ ‘햇솥’ 등 예로 들 수 있는 단어가 무척 많다.

그렇다면 그해에 새로 나온 썩을 가리킬 땐 ‘햇썩’이라고 하면 될까? ‘햇썩’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해썩’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나온다. 우리말에서 단어의 첫 소리가 된소리(ㅁ, ㅂ, ㅅ, ㅆ)나 거센소리(ㄷ, ㅌ, ㅊ)로 날 때에는 ‘해-’이 아닌 ‘해-’를 쓰도록 하고 있다. ‘썩’의 경우 단어의 첫머리가 된소리인 ‘ㅆ’으로 시작되므로 ‘햇-’이 아닌 ‘해-’가 붙어 ‘해썩’이 되는 것이다. ‘팔’과 ‘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단어의 첫머리가 거센소리인 ‘ㄷ’과 ‘ㅌ’으로 시작되므로 ‘햇팔’ ‘햇콩’이 아닌 ‘해팔’ ‘해콩’으로 써야 바른 표현이 된다. ‘햇것’ ‘햇나물’ ‘햇병아리’ 등은 단어의 첫머리가 ‘ㄱ’ ‘ㄴ’ ‘ㄹ’으로,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아니므로 ‘햇-’을 붙이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재외선거는 신뢰 재건의 시작



김형재
사회부 부장

의 답화문은 공명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저는 계엄을 선포하긴 했지만,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권 남용과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현대사회 국가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다. 공동체 사회의 신뢰와 공권력은 헌법에 기초한다.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차장은 그런 명령이 통하는 국가가 ‘북한’이라고 단언했다. 대한민국은 왕정도 독재 국가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막으려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꾸짖었다.

윤 전 대통령은 투표라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설립된 정부 대표였다. 그럼에도 그는 공동체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대통령을 파면했다.

공동체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헌법수호를 핵심으로 꼽는다.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헌법에 기초해 권력을 위임하고 법을 지키는 이 유도 삶의 공간,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파면은 한국 국민에게 진중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공동체 사회를 어떻게 꾸러갈 것인가라는 숙제도 쫓는다. 그 첫 번째 시험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다. 재외선거는 5월 20~25일 치러진다.

계엄 사태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마음을 졸였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공동체 사회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제 재외선거 참여로 목소리를 굳건히 낼 수 있다. 4월 24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중요하다. 소중한 한 표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

마켓 나우

트럼프 관세, 구조 개편의 동력 될까



소날 데사이
프랭클린템플턴 재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

에서 평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점진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통해 관세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득세를 대폭 인하할 경우 관세로 확보한 재원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 대략 계산해 보면,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 체제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를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재편이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 또는 주고받기식 보복관세 부가를 동반한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향후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은 미국의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관세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분기 관세 정책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와 2분기 초반까지 지속될 성장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물가 측면에서도 일시적이거나 1.25~1.5%포인트 수준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도 올해 남은 기간 최대 1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채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관세정책의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개편 여부에 따라 미국과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리스팅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리스팅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쓸모 묻지 마라, 하다 보면 뭔가 일어난다”

안혜리의 인생

논설위원



“무용해 보이는 것에 대한 열정.”
‘무엇인가’ 시리즈로 이름난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에세이집 『공부란 무엇인가』(2020)에서 내린 공부 정의다. 이를 적용하자면, 악명 높은 “7세 고사”나 “의대 쏠림”으로 유명한 한국은 무엇을 왜 공부하는지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열이 높다기보다 오히려 교육에 냉담한 사회다. 김 교수가 “(입시·취업을 위한) 수단화된 공부 말고 특별한 목적 없이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에선 물정 모르는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거부감이 커져 초등학교 6학년이면 벌써 열에 여섯(62%)은 ‘공부가 싫다’고 한다. 어렵고(49%), 부모 강요로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16%)이다. 김 교수 식 표현으로, 입시와 취업으로 환원되지 않는 공부를 할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의 슬픈 자화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 한국 사회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러하듯 공부를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더 알고 싶고, 배우는 게 재밌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두 동생이 대학교 취업하는 동안 본인은 공부가 싫어 고교 중퇴 후 마흔 살 되도록 고향에서 수박 농사를 짓던 공근식(55) 박사 애기다. 너무 드문 사례라 TV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까지 그들 다뤘다.

그도 그럴 것이 검정고시로 딴 고교 졸업 자격증 하나 달랑 들고 마흔둘에 덜컥 낯선 러시아 유학을 떠난 것만도 놀라운데, 술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러시아 최고 학교(모스크바 물리기술원·MIPT)에서 10년 만에 우주항공공학 박사를 땀으니 경이롭다는 말도 부족하다. 이 모든 게 공부의 쓸모를 따지기는커녕 학위 욕심이나 취업, 심지어 결혼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라도 더 배우려다 이뤄낸 일이었다. 공 박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2022년 귀국한 후 이번 학기부터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박사 후 과정과 양자역학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성대 국제관에서 ‘무용한’ 공부에 인생

을 건 사연을 듣고, 그의 시각에서 정리했다.

두번의 자퇴

내륙이지만 강물에 둘러싸여 섬 같은 금강 상류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가 고향이다. 부모님은 여기 국유지 빌려 수박 농사를 지었다. 공부가 싫었던 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농사나 짓자.”

다행히 재능이 있었다. 초강리 수박이 원체 당도 높기로 유명했지만 내가 키운 수박은 더 크고 달아 더 비싸게 팔았다. 농업기술센터의 농민 후계자로 뽑힐 만큼 성실하기도 했다. 4500평(1만5000㎡) 하우스에서 매년 12월 중순 수박 모종을 키워 이듬해 6월 시장에 내보내면, 곧바로 알타리무를 파종해 두 번 더 수확했다. 이렇게 1년에 세 번 농사지어 우리 식구 먹고살고 동생들 공부할 돈을 벌었다.

인생 변곡점은 우연히 왔다. 스물여덟이던 1998년 수박 출하하러 갔다가 대전역에 붙은 야학 안내문을 보고 홀리듯 공부를 시작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박사 과정 학생들이 자원봉사 교사였는데, 농사일 마치면 기차 타고 대전으로 달려가 야학 원래 취지인 검정고시 준비 아닌 물리와 수학에 매달렸다. “더 가르쳐주세요. 더, 더, 더.” 그렇게 5년을 더 배웠다. 야학 선생님들 졸업에 맞춰 고졸 인정 검정고시 자격증을 땀다. 내친김에 수능까지 봐서 배재대 전산전자물리학과(현 전기전자공학과) 04학번이 됐다.

인복을 타고났는지 여기에서도 여러 은인을 만났다. 전산전자물리학과 박종대 교수, 화학과 교환 교수로 온 고려인 김용하 교수, MIPT에서 온 러시아 박사, 그리고 충남대 물리학과 박병운 교수 등이다. 가령 석탄에서 부식산을 추출해 액체비료 만드는 연구를 하며 내 무밭에서 실험하던 김 교수는 러시아어 등 여러 도움을 줬다. MIPT에서 온 박사는 일주일에 두세 번 물리 강의를 해줬다. 러시아어·영어 모두 서툴렀지만 수식 보고 눈치로 배웠다. 결정적 은인은 박종대 교수다. 이런 내 공부 열정을 눈여겨보곤 이듬해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청강하도록 도와줬다. 그런데 너무 어려웠다. 무작정 충남대 물리학과에 가 붙여진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박병운 교수 방이었다. “카이스트 청강생인데 수업 듣게 해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허락했다. 카이스트 수업 마치면 곧바로 충남대에 가 진도가 좀 느린 비슷한 수업을 들었다.

공부 싫어 자퇴, 유학 중엔 퇴학
노벨상 배출 명문서 수석 졸업
인생 반전 배경엔 “더, 더, 더” 정신
좋아서 한 공부가 주는 울림



러시아 우주항공 박사가 된 만학의 수박 농사꾼 공근식 박사를 지난 18일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만났다. 장진영 기자

3학년부턴 수업이 물리 아닌 컴퓨터 위주길래 휴학하고 카이스트와 충남대 청강에 집중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번엔 공부가 좋아서 한 중퇴였다.

한번의 퇴학

배우는 게 좋았을 뿐, 유학은 생각한 적 없었다. 그런데 2010년 태풍 곤파스

가 모든 걸 바꿔 놓았다. 심각한 침수 피해가 나자 수자원공사와 영동군청은 주민에게 보상금 주고 수박 농사를 그만 짓게 했다. 계속 농사지으려면 인근에 다른 땅 사고 하우스 세워야 했는데, 하필 기획 부동산이 기승을 부려 평(3.3㎡)당 6만원 하던 땅값이 10만원 넘게 치솟았다. 타산이 안 맞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나와 돌이 농사짓던 어머니한테 말했다. “러시아 가겠다.”

위대한 항공학자 니콜라이 주코프스키(1847~1921) 이름을 딴 모스크바 인근 주코프스키 시에 위치한 MIPT는 노벨상 수상자 10여 명과 술한 우주비행사를 배출한 항공우주 인재 양성의 산실이다. 수학·물리·화학 고교 내신으로 뽑는데 다행히 검정고시 성적이 좋았다. 마흔둘이던 2012년 일단 예비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운 후 물리공학과에 입학했다. 아무리 예비학교를 통과했어도 수업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수식 보고 어찌어찌 공부했지만 컴퓨터 없던 컴맹이라 인터넷 공지를 놓치는 통에 시험을 아예 못 보고 1학기 만에 퇴학당했다.

유학 당시 전 재산이 5000만원쯤. 아무리 학비가 싸더라도 부모 봉양은커녕 집 재산 까먹으며 유학 가는 나를 동네 어른들은 무책임하고 형편없다고 욕했을 거다. 어머니만 아무 말 없이 응원해줬는데, 이런 사실을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러시아어를 좀 더 배워 곧 돌아갈 거라고 거짓말했다. 속으론 “농사나 짓자” 했다.

몇 달 지났을까. 러시아 국가 훈장을 여럿 받은 이론물리학 석학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알릴루예프 명예교수(1928~2017)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이 교수의 양자역학 수업을 청강하며 시험도 봤는데 성적이 좋아 교수 기억에 남았던 모양이다. 내가 보이지 않자 자기 제자인 총장을 설득해 재입학 기회를 준 거였다. 다만 같은 과는 못 가고 항공우주공학과에 들어갔다.

1, 2학년은 여전히 언어가 문제였지만 성적은 꽤 좋았다. 오전 9시 시작하면 밤 9~10시까지 수업하고, 금요일에 내준 과제 하느라 주말 내내 공부했다. 어린 러시아 천재들도 버거운 수업이라 더 이악물고 했다. 다행히 귀가 트인 3학년부턴 전 과목 A 플러스 받아 외국 유학생으로는 드물게 국가장학금에다 생활비까지 넉넉히 받았고, 수석 졸업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쓸모없고 쓸모있는 박사

화성 탐사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폭발 없이 무사한 착륙을 돕는 극초음속 연구는 국방 관련 예산한 분야라 유학생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 그런데 받아준다니 진로니 뭐니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자” 했다.

수박 농사짓다 뒤늦게 우주공학 공부하는 내 사연은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화제였다. MIPT 학술지와 현지 언론에 소개된 덕분인지 학교 측은 한국 행 비행기 표까지 사주며 각별히 챙겼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다. 가령 박사 과정 때 주 1회 열리는 세미나에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 참석이 막혔다. 심지어 지도 교수 논문도 공유 못 받기 일쑤였다. 외부 발표는 검열을 거쳤다. 단기 프로젝트로 온 MIT 박사 과정 학생과 기숙사 한방을 쓴 적 있는데, 미국 역시 극초음속 분야는 외국 유학생에게 잘 개방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관없었다. 러시아에 남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박사 후 과정(포닥)을 가려 했지만, 한국이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해 러시아의 비 우주 국가로 분류되면서 어그러졌다. 유럽판 나사(NASA)인 유럽우주국(ESA)이 러시아와 화성 탐사선을 공동 개발하며 MIPT 실험실로 들어오던 적잖은 연구비가 끊긴 영향도 컸다. 코로나와중에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며 그해 8월 박사 학위는 받았지만, 10월 귀국해야 했다.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돌보며 고향 집에서 혼자 논문을 쓰고 있다. 발사체 시뮬레이션을 위해 컴퓨터를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끄지 않고 계산 프로그램을 돌려 첫 논문은 완성했고, 두 번째 논문 작업 중이다. 야학부터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게 재밌어 공부했다. 그런데 생애 처음으로 외국 유명 학회지 등재라는 특정 목표가 생겼다. 논문을 계기로 러시아에서 멈춘 공부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어가길 희망해서다.

성대 김정현 교수 제안으로 하는 시간강사가 지금 한국에서 내 지식을 활용하는 유일한 통로다. 한국우주항공청(KASA)의 화성 탐사선 계획이 20년 뒤인 2045년에나 잡혀 있는 만큼, 당장 쓸모가 없다. 또 곧 정년퇴직할 나이라는 현실의 벽 탓인지 관련 연구 기관 취업도 쉽지 않다. 한마디로 연구는 너무 앞섰고, 나이는 너무 먹었다. 괜찮다.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공부면 어쩐가. 공부하다 보면 또 뭔가 일어나겠지.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시 설

한·미 2+2 통상협약, ‘우리 페이스’ 지키는 것이 중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우리 정부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한 관세 협의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출국장에서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협상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말 그대로 협상의 출발점이다. 조급한 성과 도출에 급급해 부실 협상으로 국익을 해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물론 한국은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 이달 1~20일 한국의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14.3% 감소했다. 미국의 관세 충격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2%에서 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만큼 관세 협상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국내외 여건상 조급한 쪽은 미국이다. 미국 내에선 반(反)트럼프 정서가 거세지고 있고, 협상 대상인 중국·EU·일본 등도 아직 관망 자세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 전쟁의 사령탑 격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협상의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대행은 이번 협상을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히며 성과 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2+2 협의에 범부처 대

표단을 파견한 것도 한 대행의 지시였다. 공직자로서 당연한 자세일 수 있으나 대선 출마를 둘러싼 모호한 태도가 의심을 부르고 있다. 만에 하나 한 대행이 관세 협상을 정치적 승부처로 보고, 성과 보여주기에 매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과 먼저 협상을 벌인 일본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과 함께 ‘최우선 목표’ 5개국에 넣었다. 중국이 맞불 관세와 희토류 수출 금지 등으로 고강도 반격에 나서자 미국은 우방국과의 협상을 먼저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에게 ‘아부의 기술’까지 썼지만 결국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일본 협상대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트럼프가 건넨 MAGA(미국을 위대하게) 모자를 썼다가 ‘실속 없는 굴욕 협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의 이름에 빗대 ‘마가자와가 됐느냐’는 조롱까지 받았다.

미·일 협상 패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장에 불쑥 나타나 방위비 부담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페이스에 밀려들지 않고,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틀 위에서 양국이 원할할 수 있는 방안을 역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부는 합의는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이행하기도 어려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협상의 물꼬는 트되 조급한 성과 도출 경계해야
자세 낮춰도 결국 미국에 당한 일본이 반면교사

연일 이어지는 이재명 ‘우클릭’, 진정성이 문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보수와 중도층에 어필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어제(22일)는 2040년 석탄 발전 폐쇄를 담은 기후변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제시했다. 탈원전에 치중해 에너지 정책에 혼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방향이다. 이 후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100조원대 규모의 인공 지능(AI) 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는 등 성장과 친기업을 강조해 왔다. 이 후보의 대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3·4·5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그제(지난 21일) SNS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썼다. 지난 대선 때도 했던 얘기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내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치중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부동산 감세 등 보수와 중도층을 겨냥한 여러 공약을 발표했으나 선거가 끝나자 당내 강경파에 밀려 입장을 바꿨다. ‘우클릭’ 변신이 그저 득표 전략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샀다.

이번에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온다. 그제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상법 개정

안 재추진’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강행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기가 가나,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기업 입장을 고려하면 상장기업 위주의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정부 입장이 설득력 있다.

그런데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해 온 이 후보가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의 친기업 정책이 민주당 내 강경론자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후보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 규제 완화에 공감하는 발언을 내놔다가 당내 저항에 부닥치자 급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만약 일련의 친기업 정책이 득표를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면 ‘주가지수 5000 시대’ 같은 청사진은 신기루일 뿐이다.

이번 상법 개정 재추진이 노란봉투법 같은 민주당 반기업 정책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주 52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타다 금지법’으로 혁신 모빌리티의 싹을 잘랐던 민주당의 규제 본능에 대한 반성 없이는 이 후보가 내세우는 어떤 성장 담론도 공허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한 걸음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기자가 직업이니 그간 많은 사람과 악수했다. 대부분 기억에 없다. 단 한 명, 강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다.

런던특파원 시절이던 2014년 교황의 방한 일정을 동행 취재했다. 서울행 전세기 ‘셰퍼드 원(Shepherd 1)’에서 그는 “여러분의 말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결속하도록 하는 데 늘 도움이 된다. (순방 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인사한 뒤 72명의 기자와 일일이 마주했다.

교황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의 눈은 기억난다. 호기심에 가득하고 장난기와 웃음을 머금은 동시에 뚫어보는, 그러나 불편하기보단 따뜻한...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 눈이 나를 향했다. 세상에 단골인 듯했다. “정치인이었더라도 세상을 들었다 놓았겠다”는 생각이 스칠 정도였다. 서울에서 교황과 만난 이들도 비슷한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느낌이었다.” 공감이었을 것이다.

‘바티칸’은 좀 달랐다.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위계적인 제도였다. 교황은 ‘가장 작은 차 쏘을’을 탔지만 바티칸 경호원들은 대형 외제차를 요구했다는데, 교황·바티칸 관계도 비슷한 느낌을 주곤 했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외교부 관료를 현장에서 만났는데 “열 개의 (대통령) 순방을 담당했던 것보다 한 개의 교황 순방이 훨씬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리버랄하고 인간적이며 겸손한 교황, 2000년의 바티칸, 이 둘의 역학이 어떨지 내내 궁금했다. 실제 교황은 ‘변화’를 원했다. 낙태·안락사·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대단히 인간적이면서도 개방적 태도를 취했다. 재혼·이혼 가정에도 손을 내밀고 140명 이상의 비유럽 출신 추기경을 임명, 더 세계화된 교회를 남겼다. 여성을 장관급에 인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다.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12년에 대해 “가톨릭 교회를 변화시켰지만, 그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썼다. 그럴 것이다.

그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고, 그 과정

에서 내린 결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결코 감추어선 안 되고 투명하지 못한 처사는 언제나 최악의 선택이란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시대는 긴박하다.

오늘을 붙잡으려 하면 이미 어제가 되어 있고, 내일을 잡으려 하면 아직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 교황 재위 세월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저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이었다.”

얼마 전 발간한 자서전에 담긴 토로다. 그는 『희망』이란 제목을 달았다. 과거를 돌아본 건 더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라고 공저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두려움도 읽힌다. 1936년생인 그는 양차 대전의 영향권에 있었다. 60년대 초 이후엔 끊임없는 폐루주의와 탄압, 도파한 나치와 결탁한 극우 집단들의 등장, 전구를 휩쓴 반유대주의 폭력과 테러 행위, 게릴라 활동을 겪었다. 그와 가까운 인물들도 실종되거나 피투성이가 돼 나타났다. 극단의 시대, 광기의 시대였

방한 때 탁월한 공감 보여준 교황
12년간 가톨릭 교회 변화 이끌어
마지막까지 “타인 배제·대립 말라”

다. 혹여 이런 시대의 재래(再來)를 우려한 건 아닐까.

“이제 저는 깊은 세월을 살아온 분들에게 조심스레 묻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이 과거의 어둠을 떠올리게 하지 않느냐. 인류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그 참혹한 역사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느냐?”

“전 세계 모든 이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호소한다. (중략) 타인과 대립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민족을 배제하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란 명분으로 벌이는 수많은 전쟁의 이면에는 개인의 탐욕과 정치적 야심이 도사릴 뿐이다. 여러분, 새로운 악몽을 잉태할 뻔인 그들의 편협하고 답답한 꿈에 간하지 말라.”

그는 자신을 “기나긴 역사 속에 한 걸음”이라고 했다. 어쩌면 그의 한 걸음이 아주 그리워질 수도 있겠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전담제작·배부망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백성호 공인회계사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before

after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과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 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재발하는 유방암, 전이 땀 허투 시그널부터 체크

유방암 허투 시그널 찾기
유방암은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환이다.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퍼진 전이성 유방암은 암세포의 조직학적·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항암 치료 전략이 달라진다. 최근 암세포 성장·증식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허투(HER2)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에, 항암 치료 효과가 높은 세포 독성 항암제를 결합한 항체약물결합체(ADC) 계열 항암제가 등장하면서 전이성 유방암 치료 트렌드가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전이성 유방암 치료 전략을 세울 때도 허투 시그널을 우선 살필 것을 강조한다.

한국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유방암이다. 한 해 2만8000여 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 유방 촬영술 등 유방암 선별 검진이 활성화된 한국은 조기 유방암 발견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발행한 ‘유방암백서 2024’에 따르면 국내에선 조기 유방암으로 분류되는 0-12기 환자가 90% 이상이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치료하면 10명 중 9명이 5년 이상 생존한다. 유방암 10년 생존율도 89.3%로 높다. 문제는 유방암 재발로 인한 암세포 전이다.

허투 발현도 낮아도 치료 효과 입증
전이성 유방암 치료 판도를 바꾼 것은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ADC 계열 항암제 ‘엔허투’다. ADC 계열 항암제는 암세포 등을 식별하는 항체의 안내를 받아 암세포로 진입하면, 항체와 세포 독성이 있는 약물이 분리되면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졌다. 정해진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유도미사일과 비슷해 ‘유도미사일 항암제’라고도 불린다. 엔허투는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허투 단백질



국내 0-1-2기 유방암 환자 90% 이상
ADC 항암제로 허투 표적치료 넓어져
전이성 유방암 분류 기준도 새롭게 변경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인 트라스투주매파와 암세포를 사멸하는 성분인 데록스테칸을 결합한 치료제다. 표적이 되는 허투 시그널이 강할수록 항암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
엔허투는 허투 발현 수준이 낮은 유방암 환자에게서도 기존 치료법 대비 우월한 치료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허투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연구에서 엔허투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암세포가 증식하지 않는 무진행생존기간(PFS)을 2배 이상 늘렸다. 또 전체생존기간(OS)에서 사망 위험을 36% 이상 줄였다. 허투를 표적으로 한 전이성 유방암 치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해당 임상 연구는 2022년 암 치료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했다. 기존에도 허투를 표적으로 치료하는 여러 항암제가 있지만, 허투 발현도가 높은 허투 양성 유방암에만 효과가 있었다. 손교수는 “과거엔 허투 수용체가 있어도 발현도가 낮을 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어 사실상 허투 음성 유방암으로 분류됐다”며 “부작용이 심한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해야 하는 등 한계가 존재



했다”고 말했다.
허투 표적 치료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전이성 유방암에서 허투 시그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임상 현장에서도 허투 시그널을 중심으로 유방암을 분류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허투 발현도가 낮아 허투 표적치료를 받지 못했던 이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현장의 숙제가 됐다. 손교수는 “달라진 유방암 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허투 표적치료가 어려운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의 60%,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50%에서 허투 시그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새 기준 적용하면 기존 알던 유방암 아닐 수도
손교수가 진료했던 전이성 유방암 환자 이지영(가명)씨의 사례가 한 예다. 이씨는 2020년 전이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허투 발현도가 낮아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분류돼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엔허투가 허투 저발현 유방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이 추가되자 손교수는 허투 저발현 검사 결과를 근거로 엔허투 처방을 권고했다. 항암 치료 전략을 바꾼 이씨는 현재까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유방암 환자의 허투 시그널은 일차적으로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허투 수용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면역조직화학(IHC) 검사, 이차적으로 허투 유전자 증폭 수준을 측정해 허투 수용체 발현도를 살피는 제자리부합법(ISH) 검사 등을 종합해 구분한다. 허투 발현도를 기준으로 유방암을 분류하면 ▶허투 시그널이 강력한 허투 양성 유방암 ▶허투 저발현 유방암 ▶허투 초저발현 유방암 ▶허투 수용체가 없는 허투 음성 유방암으로 나뉜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봉사할수록 오래 살았다...수명 늘리는 ‘이타적 유전자’

병원 가톨릭 원목실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의과대학 4학년 때 일이다. 그때 만난 위암 말기 중년 남성 환자와의 인연으로 필자는 웰다잉과 호스피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진료, 연구와 정책 개발에 주력했다.

사실 중학생 때 위암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누님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학생 시절에 난지도 야학, 진료 봉사를 하면서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되었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가졌던 슬픔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현재의 나를 있게 했다.

자원봉사는 주도적인 삶의 시작

암이 재발하지 않고 무사히 5년이 지나면 완치되었다고 말한다. 완치된 암 생존자들과 함께 항암 치료가 막 끝난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건강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암 생존자들은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으며 자원봉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찬 일 중 하나이며 삶의 의미라 생각한다. 하지만 봉사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봉사가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지, 이타적 삶이 수명을 연장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원봉사가 봉사하는 자신에게도 건강과 생존에도 실제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 노화 종단 연구(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LSA)’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건강한 자원봉사자에서 건강한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사망률이 약 20% 감소했다.

10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



자원봉사가 사망률에 미친 영향

-20%

영국 노화 종단 연구
1만324명 10.9년 추적 조사
건강한 자원봉사자 사망률 감소

-24%

65세 이상 자원봉사자 대상
2020년 발표 10개 연구 메타 분석 결과

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사망률이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 분석이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통계 분석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5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도 22%의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었다. 건강 회복 역량만이 아니라 우울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가 있는 노인에서는 자원봉사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돈으로 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내서 하는 직접적 봉사가 자신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니 놀라운 신비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자신의 위기를 넘어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하는 적응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우울 증상을 감소시켜 웰빙을 향상

영국 건강한 사람 10년 추적 조사

자원봉사자 사망률 20% 더 낮아

다른 메타 연구서도 비슷한 결과

타인 돕는 행위 우울감 감소시켜

신체·사회적 활동으로 건강 증진

한다. 연구들은 자원봉사가 삶의 목적이 되고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갈 이유가 되고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생존력이 올라가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이기적 유전자’로 이어진 인간 생명이지만, 이기적 생존 본능을 넘어 함께 인간다운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는 삶의 공동체를 번영시키도록 설계된 ‘이타적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른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신을 거역한 벌로 인간이 되었다가 용서를 받고 천사로 돌아간 미하일이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봉사와 공동체의 사랑 덕분이라고.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지나가던 행인과 그의 처가 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아들이 살 수 있었던 것도 이웃 여인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야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높아지고 생존력 올라가

자원봉사는 주도적인 삶의 시작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생존’ ‘안전’ ‘소속’ ‘인정’ ‘자아실현’, 인간의 다섯 가지 욕구를 주장했다. 그가 나중에 추가한 ‘자기 초월’ 욕구가 자신의 재산·재능·시간과 삶을 인류와 세상에 나누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어쩌면 개인을 넘어 가족·직장·사회·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위해 베풀어준 인류와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의 의무일지도 모른다.

최근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업들도 관심이 커져 직원들도 회사와 함께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만을 위해 설계된 줄 알았던 ‘이기적 유전자’조차 ‘이타적 유전자’로 변신해 생물적 존재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존재를 넘어 사랑을 베푸는 신적(神的)인 존재를 향한 인간의 욕구를 응원하고 있다.

‘이기적 유전자’를 ‘이타적 유전자’로 진화시켜 자신의 의지로 타인을 배려하고 봉사할 수 있음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이기적 삶’을 넘어 ‘이타적 삶’으로 진화할 때 인간의 생존력이 더 강해지고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자연과 인류 문명이 그냥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감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봉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전문의 칼럼 / 권혁수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방치하면 천식 된다, 알레르기 비염 완화시키는 생활습관

꽃가루 등 알레르겐이 코점막 자극 축농증·중이염 등으로 번지기도

봄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일상이 괴로운 시기다. 꽃가루가 날리고 황사가 심해질수록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 재채기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한 코막힘이 아니라 콧속

점막의 ‘염증’ 문제다.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황사 등 알레르겐(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면역계가 과민 반응하면서 코점막을 자극해 증상이 악화하기 쉽다.

밤새 코가 막히면 수면 부족으로 만성 피로,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인지 기능도 떨어진다. 코막힘 증상에 입을 벌리고 자면서 구강 건강까지 해칠 수 있

다. 부비동염(축농증)·중이염·결막염 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30%는 천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수적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코막힘과 콧물은 물론 눈 가려움까지 줄이는 효과가 탁월하다. 먹는 스테로이드와 달리 전신

흡수가 적어 소아나 임신부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년간 꾸준히 써도 문제가 거의 없을 만큼 임상 경험도 축적돼 있다. 다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증상이 없을 때도 꾸준히 뿌려야 한다. 증상이 심할 때만 간헐적으로 쓰면 염증이 다시 올라오기 쉽다. 매일 양치질을 하듯, 날마다 코점막을 관리해야 알레르

기 비염을 완화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콧물과 코막힘이 싹 사라지진 않지만, 며칠에서 몇 주간 지속해서 적용하면 잠 못들게 했던 코막힘이 서서히 개선된다. 필요에 따라 항히스타민제나 류코트리엔길항제 등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불면증, 어지럼증
- 만성피로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소화장애, 순환장애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외대사 연경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건강 칼럼

섬유근통증후군

43세 여성환자가 오래된 통증으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였는데, 여러 부위의 근육통 및 관절통을 호소하였다. 이 외에도 환자는 두통, 손발저림, 어지럼증 및 심한 불면증도 있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쉽게 피로를 느끼며, 폭작고 일어나도 아침에 상쾌한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일상생활 중에도 집중력이 극도로 떨어져 일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환자를 진찰하였을때 머리뒤쪽, 어깨, 등, 허리, 팔, 무릎, 그리고 다리 등에서 많은 압통점(눌러봐서 아픈부위)이 있었다.

혈액 검사를 포함한 다른 검사 소견들은 모두 정상이었다. 필자를 찾아온 이 환자는 우울증, 하지불안증, 수면무호흡증 및 건초염과 같은 다양한 국소근골격계 질환도 같이 동반하고 있었다.

환자의 상태는 2010년 미국류마티스 협회가 제시한 섬유근통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인구 중 약 10%에서 전신의 만성통증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러한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질병이나 신체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에 의하면 이들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중 많은 수가 섬유근통증후군 진단기준에 합당한 증상 및 징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섬유근통증후군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섬유근통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중추신경계는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섬유근통 환자의 뇌를 기능자기공명영상으로 촬영했을때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특정 뇌부위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뇌로부터 시작되는 하행통증 억제경로가 이들 환자에게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어떻게 섬유근통이 생기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많은 답을 곧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근통증후군은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지만 진행하지는 않는다.

주의할 점은 섬유근통증후군은 이를 진단할 특이한 검사가 없는 관계로 류마티스관절염, 전신홍반루프스와 같은 염증성 류마티스질환, 골관절염, 요추관협착증과 같은 비염증성 근골격계질환 등을 감별해야 함이 관련이므로 관련분야 여러 전문의들의 정확한 진단과 협진이 섬유근통증후군 치료에 필요하다.

본 환자의 경우도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통증의 상당 부분이 호전될 수 있었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 퇴행성관절염 치료 각광

“무릎이 다시 살아나니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연골재생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은 많은 환자가 공통으로 전하는 진심이다.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어려웠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치료 후 다시 달리고, 스포츠를 즐기며 삶의 질을 되찾고 있다.

강남제이에스병원 송준섭 대표원장(55)은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의 선구자로 불린다. 지난 10여년간 수천 명의 국내외 환자들을 치료하며 꾸준한 연구와 임상을 통해 치료법을 발전시켜 왔다. 중동, 중국, 유럽 영어권 국가 등에서 온 환자들이 무릎 연골재생을 위해 이 병원을 찾는다.

카타르 및 UAE 등 GCC 국가 다수의 환자 치료 후 주한카타르대사로부터 감사패 수여를 받았다. 최근에는 카타르 도하 현지 의료기관의 공식요청을 받고 현지정부로부터 정식의료 면허를 받아 진료시작을준비 중이다. 또한 중국 항저우에서의 순회 진료, 몽골의 현지 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현지 진료 등 해외 의료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송원장이 대한민국 의료 기술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의료 외교관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줄기세포 이용 연골재생 선도
1호 환자 히딩크 감독 치료 효과
인공관절 수술 대신 자연 치유

감독은 강남제이에스병원의 1호 환자다. 그는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은 국내 최초 환자였다.

2013년, 히딩크 감독은 심각한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축구와 골프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유럽과 미국 등 유수의 의료기관에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한국 의료에 희망을 걸고 직접 송원장을 찾아왔다.

“처음 만나던 날, 히딩크 감독은 세계 ‘이 수술이 정말 안전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저 역시 ‘아직 이 수술 방법을 집도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미세천공술은 많은 수술케이스를 집도했으며, 그 수술방법에서 줄기세포 약물을 사용하여 업그레이드된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안전한 수술 방법이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죠.”

당시 송원장은 2012년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메디포스트사의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을 활용해, 2014년 1월 히딩크 감독의 무릎 수술을 집도했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강남제이에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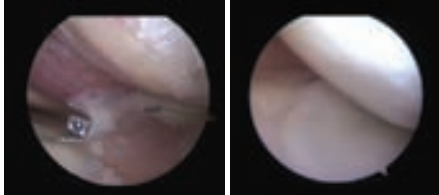
수술 후 히딩크 감독은 3개월간의 재활과 치료를 진행 후, 다시 골프와 테니스를 즐길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이후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받은 수많은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무릎 수술”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후 히딩크 감독은 22년에는 반대 무릎도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수술을 받았고, 두 다리 모두 완치되었다.

▶**연골재생 줄기세포 수술 효과**

현재까지 2800명 이상의 환자가 송원장의 치료를 받았다. 치료 성과는 기존의 인공관절 치환술과 비교해 훨씬 안전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보인다.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은 제대혈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식이다. 기존의 인공관절 치환술과 달리 뼈를 깎아낼 필요가 없으며, 환자 본연의 자연 연골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재생 수술 전(왼쪽)과 후, 연골재생 효과가 나타났다.

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무릎 기능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무릎 연골이 손상되면 뼈와 뼈가 직접 충돌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심한 통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감소하고 근육이 퇴화하고 혈액순환이 악화됩니다. 그러나 줄기세포 수술을 이용하여 연골이 완벽하게 재생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다시 증가하고 근육이 살아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송원장의 연구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단순히 관절 건강이 회복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 노화 속도 역시 눈에 띄게 늦춰지는 효과를 보였다. 실제로 2014년 당시 68세였던 한 환자는 10년이 지난 지금 78세임에도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다른 77세 환자 역시 수술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강 상태와 외모 모두 처음 치료받던 당시와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이식과 환다리 교정술**

전체 환자 2800명 중 1500명은 ‘환다리 교정술’도 받았다.

연골의 손상과 퇴행성 관절염 원인이 분명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O 다리 또는 X자 다리와 같은 변형된 하지 구조이다. 이는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다. 이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이 환다리 교정술이다. 수술 이후 무릎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중 지지와 무게중심 분산 등이 보다 좋은 결과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수술받은 환자들의 여생을 건강한 연골과 관절로 보낼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줄기세포 이식술과 환다리 교정술’은 무릎수술의 꽃이자 최고 정점의 수술이라고 평가한다. 기존의 퇴행성관절염이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 중 하나였으나, 지금 이를 완치할 수 있는 의료기술로 대변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향후 관절염 치료는 인공관절이 아닌 줄기세포이식과 환다리 교정술을 통한 건강한 관절 복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서울 강남제이에스병원



퍼스트 홈케어
홈케어 에이전시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룸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드르릉~ 킅” 막힌 숨 터주고 일상에 활력 넣는 수면무호흡 명의

환자로서의 경험 살려 눈높이 진료
검사비 건강보험 혜택 적용에 기여
공로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표창도

고요한 새벽, 적막을 깨고 우렁찬 진동음이 귓가를 때린다. “드르릉” 한참을 이어지던 코골이는 “킅” 하는 소리와 함께 뚝 멎는다. 정적이 길어질수록 옆에 누운 사람의 불안감은 커진다. 혹시 숨이 멎은 건 아닐까 코밑에 손을 대보려는 순간 “푸” 하고 긴 숨이 터져 나온다. 잠든 이도, 지켜보는 사람도 편히 잘 수 없는 수면무호흡증의 모습이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는 질환이다. 상부 기도가 막혀 발생하는 폐쇄성이 특히 흔하다. 수면무호흡증은 매일 밤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지만, 자각이 쉽지 않고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도 많지 않다. 대개는 주변인의 권유로 마지못해 병원 문을 두드린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비인후과 박찬순 교수는 이런 환자들에게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검사와 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

보건 향상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지난 8일 성빈센트병원 수면무호흡증 클리닉에서 박 교수를 만났다.

주로 어떤 환자들이 오나.

“가족이나 동료의 반복된 문제 제기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잠을 자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수면무호흡증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에 적극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스스로 문제를 인지해야 다음 단계인 치료로 넘어갈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인식시키나.

“당뇨·고혈압을 예로 든다. 수면무호흡증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서다. 당뇨를 치료하지 않고 두면 5년, 10년 뒤 당뇨병성 족부 궤양(당뇨발) 같은 합병증으로 고생하듯 수면무호흡증도 마찬가지다. 방치하면 합병증이 계속 따라붙는다. 당장 다음 날 덜 피곤해지는 효과도 있지만, 심장과 뇌에 생길 수 있는 장기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박찬순 교수는 의사이면서 수면무호흡증 환자다. 같은 질환을 겪는 이들에게 '동반자'의 마음으로 다가가려 한다.

수면다원검사도 강조한다고 들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며 수면 중 뇌파와 산소포화도, 호흡 상태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정확한 진단뿐 아니라 질환의 심각성을 수치와 그래프로 보여줘 환자 스스로 수면 문제를 질환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더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적용에 힘쓴 이유이기도 하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수면다원검사는 비용 부담이 커 환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명백한 이상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망설이거나 “생각해 보겠다”

며 돌아서기 일쑤였다. 박 교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의사들과 2011년부터 관련 부처 회의에 참석하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를 열어주는 의료기기)의 급여화·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7년여간 동료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노력한 결과 2018년부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대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환자 부담이 얼마나 낮아졌나.

“기존에 많게는 100만원대였던 수면

다원검사를 건강보험 적용 시 10만원대에 할 수 있다. 소아는 5만원 이하에도 가능하다. 양압기는 과거 200만원 이상을 들여 구매해야 했지만, 지금은 월 2만원 이하에 대여할 수 있게 됐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환자들이 많겠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특히 직업상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의 치료를 돕고 나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부라도 힘을 보탰다는 뿌듯함을 느낀다. 실제 만성 졸음을 겪는다며 찾아온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도 있었다. 처음엔 양압기 사용에 소극적이었지만, 기기 사용 후 피로도가 줄자 나중엔 차량까지 개조해 양압기를 꽂을 콘센트를 설치했다.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사고까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됐다.”

박 교수가 환자와의 관계에서 지향하는 역할은 ‘치료자’를 넘어선 ‘동반자’다. 특히나 그는 의사이면서 올해로 10년째 양압기 치료를 받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다. 치료를 앞두고 갖는 불안과 망설임,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직접 경험해 봤기에 환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긴다.

하지수 기자

남성은 고지방·고당 섭취 줄이고, 여성은 과도한 질세정제 사용 피해야

배뇨장애 유발하는 3대 질환 요즘 소변을 보는데 불편하거나 답답하고 통증을 느낀다고 가정해 보자.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 아마도 3개 질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전립샘비대증, 요도염, 방광염이다. 이들 질환은 모두 배뇨장 장애를 유발하지만 각기 다른 질환이다. 특히 정확히 진단해 치료하지 않으면 단순히 배뇨장애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합병증이나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류장훈 기자

우선 전립샘비대증은 요도를 둘러싼 전립샘이 노화함에 따라 커지면서 물리적으로 요도를 압박해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질환이다. 반면에 요도염과 방광염은 질환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이다.

한림대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는 “호흡기 질환으로 치면 전립샘비대증은 기관지 천식이나 기관지 확장증처럼 기능이 안 좋아서 생기는 병이라면, 요도염·방광염은 감기나 폐렴 같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립샘비대증은 서서히 진행되고 요도염·방광염은 급성으로 나타난다.

세 질환 증상·원인 겹치면서도 달라 증상도 조금씩 다르다. 전립샘비대증은 빈뇨(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증상), 요절박(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증상), 배뇨 후에도 덜 본 것 같은 느낌(잔뇨감), 요실금, 가늘어진 소변 줄기(세뇨), 힘을 줘야 소변이 가능한 증상(복압배뇨) 등이 주요 증상이다. 방광염은 이 중 빈뇨, 요절박, 잔뇨감이 겹치지만 배뇨 시 타들어 가는 듯한 작열감을 느낀다.

반면에 요도염은 배뇨 시 따가운 증상과 통증이 있지만 여기에 소양감(간지러움) 증상이 심하고 분비물이 나온다. 보통 남성은 여성에 비해 요도가 길



“전립샘비대증, 소변 배출 힘들어져 요도염은 남성, 방광염은 여성 질환 전문의 상담 통해 맞춤 치료 받아야”

다는 신체적 차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부위가 달라 보통 요도염은 남성 질환, 방광염은 여성 질환으로 불린다. 오철영 교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똑같이 침입하더라도 남성은 요도가 길고 전립샘이라는 기관이 있어 방광까지 가지 못하고 요도에 침착해 요도염이 잘 걸리는 반면, 여성은 요도가 짧아 방광염이 잘 생긴다”고 말했다.

같은 감염이더라도 요도염과 방광염은 발생 원인에서 차이를 보인다. 요도염은 성전파성 질환이다.

성관계로 인해 전염되는 질환이라는 의미다. 방광염도 성관계가 감염 경로 중 하나다. 하지만 타인이 원인으로 작용하진 않는다.

오 교수는 “성행위 과정에서 질 분비액과 본인이 갖고 있는 항문 주변의 대장균이 섞여 요도 안으로 침범했을 때 방광염이 생긴다. 따라서 요도염과 달리 방광염은 성전파성 질환은 아니다”며 “여성에게 성전파성 질환은 방광염이 아닌 질염”이라고 설명했다.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얼마든지 심각해질 수 있는 질환이다. 전립샘비대증은 치료하지 않고 악화하면 소변이 아예 배출되지 않는 급성 요폐색으로 진행되고 결국 방광과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방광염은 감염이 신장까지 번져 신우신염으로 악화할 수 있고, 감염에 취약한 당뇨병 환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패혈증까지 가기도 한다.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5/5 ~ 5/9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100세 시대, 은퇴 남성도 밥상 차릴 줄 알아야

‘외조의 첫걸음’

남성 노인 요리 교실 붐

신사의 주방, 상남자의 부엌, 아버지 요리 교실, 은빛네트워킹(cook)·중장년,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교실이 문전성시다. 눈길 끄는 작명 감각에서 시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남자도 스스로 밥상을 차려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주방과는 거리가 멀었던 남성 어르신도 이제 앞치마를 두른다. '남자 체면에'라며 부엌 문턱조차 밟지 않았던 것과 달라진 풍경이다.

“요새 먹방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너무 조미료 많이 쓴다 싶으면 나름대로 비평도 해요. 샐러드에 마요네즈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식초를 넣으면 입맛 나고 몸에도 좋아요”

지난 2일 전화기 너머로 요리 수업 후기를 전하는 이윤의(72·서울 노원구) 씨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다. 이날 저녁 밥상으로 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혈압약을 먹는 이씨의 삼삼한 조리 전략은 소금을 줄이고 간장과 버섯가루 같은 조미료를 적당히 섞는 것이다.

그러면 염도를 낮추면서도 맛을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짜게 먹지 말라고 해도 방법을 몰랐는데 염도 조절하는 법을 알게 되니 혈압도 상당히 좋아졌다. 건강이란 큰 수확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올해 초 난생처음 요리 수업을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달을 다녔다. 오래전 은퇴한 그에게 요리는 생활의 활력소가 됐다. 배움에 망설이지 않은 덕분에 이제 뜨끈한 찌개 정도는 거뜬히 끓인다. 이씨는 “아이들도 독립했고 집사람도 없으니 혼자 밥을 챙겨야 했다”며 “처음엔 요리 배우는 게 좀 창피한 거 같았는데 몇 번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아주 재밌더라”고 했다.

4명 중 3명은 배우자에게 의존

‘백세시대’ 건강의 기본이 식단이다. 하지만 남성 노인은 조리 경험이 부족하다. 홀로 되거나 배우자 병간호를 해야 할 때처럼 스스로 끼니를 챙겨야 하는 상황을 어려워한다. 한국 남성 노인 4명 중 3명은 배우자가 조리한 식사에 의존한다. 직접 식사를 준비할 땐 반조리 식품 이용률이 31%로 여성(8.9%)보다 4배 높다(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21).

서울 노원구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의 남성 요리 교실 ‘신사의 주방’을 담당하는 김현숙 사회복지사는 “요리에 서툴렀던 분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보면 큰 성취감을 경험한다”며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만족감이 크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 짜게 먹는 경향이 있는데 요리 교



“
아빠 요리 선보일 때 설렘 알게돼
그간 밥상 차려준 아내에게 보답
건강 식단 배우며 고립감도 완화

실에서는 이런 습관을 바로잡는 저염식을 중점적으로 수업한다.

김 사회복지사는 “염도 측정계를 나눠 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렸더니 식습관 개선이 꽤 쉽게 드러나고 있다.”

식사를 사 드셨던 분들도 다양한 요리를 직접 해보겠다고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배워 간다”고 말했다.

가족과 소통에 긍정적 영향줘

남성에게 요리는 단순한 가사 활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시금 되찾는 의미가 있다. 은퇴한 남성 노인 학습자들의 요리교실 참여경험 탐색(한국성인교육학회, 2017)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스스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돼 삶에서 행복을 느꼈다.

또 요리를 통해 가족을 배려하고 돌보는 역할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삶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에 보람을 느꼈다. 이런 결실을 ‘행복한 밥상’ ‘외조의 첫걸음’으로 표현했다. 연구팀은 “압축적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은퇴한 남성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부부·가족 간 원활한 소통을 끌어내는 데 요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도 그렇까. 요리 교실에 다니는 60대 신씨는 “가족들에게 아빠 요리를 선보일 때의 설렘을 알게 됐다”며 “바쁘게 앞날만 보며 소통이 부족한 아버지로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 김씨는 “아내가 아프면 내가 밥상을 차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밥상 차려준 아내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도 적극적으로 요리를 취미 삼을 만하다. 이훈, 사별, 기러기 아빠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 가구가 증가세다.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자보다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중고령자의 우울 수준이 높다. 지자체와 복지관에서 중장년 1인 가구와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리 교실을 운영하는 배경이다. 건강 식단을 배우며 영양 균형을 맞추고, 함께 요리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도록 돕는다.

이민영 기자

남성호르몬제 사용에 관하여

한때 여성호르몬은 갱년기 여성에게서 젊어지는 약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여성호르몬을 오래 사용할 경우 유방암이나 심장병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성호르몬의 사용이 크게 감소했다.

남성호르몬에 관한 연구 결과 남성도 여성의 폐경기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이때 고환의 위축과 함께 남성호르몬 생산이 감소하면서 근육의 위축이 온다. 성기능의 감퇴가 동반되며 더 나아가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노년기 남성에서 남성호르몬 제제의 사용이 증가되어왔다.

70대 중반의 남성 김모씨는최근 들

어 부쩍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또 성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성욕도 현저히 저하됨을 느꼈다. 주위에서 남성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병원을 찾아왔다.

남성호르몬은 오랫동안 노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다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효과도 임상연구를 토대로 확인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저하된 경우에만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남성호르몬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들에게서 성기능

을 향상해주는 반면, 보행능력이나 근력증가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불분명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남성호르몬에 대한 수요는 3배가 증가했다. 2018년도에는 그 비용이 미국 내에서 240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국(FDA)에서 남성호르몬 사용과 심장병의 연관성을 제기하면서 미국에서 사용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년간 미정부 주도로 남성호르몬 사용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는 65세 이상 남성중에 남성호르몬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남성호르몬 사용 남성들은 성기능과 성욕이 크게 증가되었지만 보행거리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보행속도는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또 남성호르몬을 사용하면 정력이나 피로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우울 증상은 호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가 남성호르몬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임상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이 연구가 제약회사가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셋

째, 연구대상의 60%가 비만이었는데 체중조절만 해도 남성호르몬 혈중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최근에 미국 내 미디어를 크게 장식한 남성호르몬의 성기능 증가 기사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남성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연구가 아직 결론나지 않은 단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호르몬 효과에 대해 일부 임상 결과만을 적용하는 것은 선불러 보인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폐경기 여성에 관한 여성호르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년간에 걸친 대규모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서울 미구 한방병원

29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미구한방병원 방영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라(羅), 빛을 엮다’ 전시

고대 직물 ‘라’ 매직 빛 반 공기 반 한복

9일부터 27일까지 재단법인 아름자기
통의동 사옥에서 ‘라(羅), 빛을 엮다’
전시가 열린다. 중앙화동재단 부설 전
통문화연구소 온지음의 옷공방과 오
마 스페이스(OMA Space)가 협업해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적 감각
으로 새로운 한복을 제시하기 위해 기
획된 전시다.

온지음 옷공방은 한국의 복식 문화
연구와 유물 고증을 바탕으로 전통 한
복을 맞춤 제작하는 연구 집단이다. 또
한 우리 전통 복식에 담긴 선조들의 지
혜와 멋, 철학을 연구하고 현대적 소재
와 기법을 접목해 우리 의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라, 얇고 투명하며 부드러운 실루엣 특
징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 입기 편리하고 입고 싶어 하는 한
복’이란 어떤 모습일까.

삶의 방식이 달라진 현대에서 한복
의 변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과거로부
터 미래로 이어져야 할 원칙은 필요하
다. 온지음 옷공방이 새로운 한복의 정
체성을 만들기 위해 세운 기준은 두 가
지다. 상의와 하의(치마·바지)가 분리
되는 ‘이부양식(二部樣式)’, 앞섶을 V
자 형태로 여미는 ‘카프탄(caftan) 양
식’이다. 조효숙 옷공방 자문위원은
“여기에 자연의 미, 절제의 미, 품격의
미를 갖춘 게 한복의 기본”이라고 했
다.

이번 전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우
리 전통 한복 소재를 연구·개발해 사
용했다는 점이다. 전시 제목에서 강조
하고 있는 ‘라(羅)’가 그것이다. 옷공
방 이선경 방장은 “‘라’는 우리나라 고
대부터 사용된 전통직물로, 특히 고려
시대에는 그 제작기술이 매우 뛰어나
원나라 등 해외에도 알려질 정도였다”
며 “라를 전문으로 짜는 장인이 따로
있고, 이들의 월급은 다른 직조기술자

온지음 옷공방·오마 스페이스 협업
현대적으로 짠 고대직물 ‘라’ 활용
일상복과 믹스 가능한 한복 선보여
“소재로 한복의 뛰어난 미감 살려
한복 현대화하는 데 철학 가져야”

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했다.

4개의 경사가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위사를 넣어 일종의 그물처럼 얇힌 구
조의 ‘라’는 현대의 니트와 비슷한 느낌
을 준다. 하지만 신축성이 훨씬 뛰어나
고 구김도 적다. 무엇보다 투명성, 투공
성이 높다. 고려시대 제작된 수월관음
도에서 관세음보살이 겉에 걸친 의상
이 바로 라로 만든 것인데, 매미의 날개
처럼 얇고 투명한 데다 물 흐르듯 부드
러운 실루엣이 특징이다.

이 방장은 “하지만 라는 현재 전해지
는 것이 거의 없다”며 “삼국시대, 고려
시대 제작된 불상 안에서 나온 작은 천
조각들이 전부”라고 했다. 이 조각 유
물과 문헌 속 기록을 바탕으로 9년 전
부터 온지음이 연구해온 결과물이 바
로 이번 전시에 사용된 라인데, 이 또한
전통 소재의 복원이나 재현은 아니다.
좋은 전통 소재를 현대인의 일상에 맞
게 살려내기 위해 옛날 방식으로 손으
로 짜지 않고, 기계로 쉽고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현대 편직기법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오마 스페이스의 장지우 대표 역시
“작업 전반에 지속 가능성과 전통의 현
대적 재해석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뒀
다”고 했다. “한복의 형태를 새롭게 디



1, 2 온지음 2025년 ‘라, 빛을 엮다’ 전시 작품. 3
전시를 위해 협업한 온지음 옷공방과 오마 스페이
스. 옷공방 이경선 방장(왼쪽)과 오마 스페이스 장
지우 대표. [사진 김용호·온지음]

자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 한복을 현대화
하기 위한 작업은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새로움은 ‘소재’
로 한복의 뛰어난 미감을 보여줄 수 있
는 기회라는 점이다. 요리할 때도 어떤
재료를 썼는지에 따라 그 맛과 철학이
새롭게 창조된다. 때문에 온지음과 협
업하면서 수년간 연구한 라 직물을 섬
유 자체로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리고
라 섬유 고유의 흐르는 물성과, 얇은 투
명성과 투공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실
루엣이 뭘까 고민했다.”

전시품 입어볼 수 있고 구매도 가능
한국과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아트&디자인 스튜디오인
오마 스페이스의 설립자이자 작가인
장지우 대표는 자연으로의 회귀와 동
양적 감성의 구현을 목표로 전통 섬유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
다. 최근에는 의상 디자인뿐 아니라 회
화작업과 설치미술까지 작업 영역을
확장해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융복합적
예술을 구현하고 있다.

장 대표 역시 이번에 현대인에 맞는
한복을 제안하면서 ‘이부양식’과 ‘카프
탄 양식’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 “요즘

모던한 디자인의 한복 중에는 근본도
없이 서양의상을 마구잡이로 접목한
것들이 많다. 이는 전통을 훼손하고 한
복을 너무 가볍게 고민한 결과다. 온지
음과 협업하는 만큼 한복을 현대화하
는데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 대표가 주목한 라의 특징 역시 투
명성과 투공성이다. 그는 “빛과 공기는
비물질이고, 실은 물질이다. 일반적으
로는 물질과 비물질이 공존하는 경우
가 드문데 라는 이것이 공존하는 직물
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다”며 “때문에
형태보다는 라가 가진 성질, 빛과 공기
를 잘 투과하는 옷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전시 오픈 행사장에선 우스갯소리처
럼 “빛 반, 공기 반으로 만들어진 옷”이
라는 말도 들렸다. 섬유의 겉 사이 사이
로 투영되는 빛의 흐름과 공기의 움직
임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15~20
점의 의상은 자연에서 찾은 은은한 색
감까지 더해져 얼마든지 일상복과 믹스
앤매치가 가능해 보였다.

전시장 지하에는 이번 전시품 중 상
의 일부를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고객이 입고 온 옷에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어울리는지 직접
경험해본 후에는 구매도 가능하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골든스테이트, NBA PO 첫판서 휴스턴 제압

‘승부사’ 버틀러 훨훨 날았다
25점 7리바운드 6도움 5스틸
막판 공격·수비서 집중력 발휘

지미 버틀러가 ‘승부사’라는 별칭에 어울리는 맹활약으로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플레이오프(PO) 첫 승을 이끌었다. 골든스테이트는 지난 20일 텍사스 주 휴스턴의 도토요타 센터에서 열린 2024-2025 NBA 서부 콘퍼런스 PO 1라운드(7전4승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휴스턴 로키츠를 95-85로 제압했다. 올 시즌 48승 34패를 기록, 서부 콘퍼런스 7위로 정규리그를 마친 골든스테이트는 플레이 인 토너먼트에서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꺾은 데 이어 2위 휴스턴(52승 30패)과 PO에서도 기선을 제압했다. 지난 2월 초 마이애미 히트와 불화를 겪던 1989년생 노장 포워드 버틀러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승부수를 던진 골든스테이트는 ‘버틀러 효과’에 활짝 웃었다.



지난 20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포워드 지미 버틀러 3세(10번)와 텍사스 휴스턴 로키츠 센터 스티븐 아담스(12번)가 도요타 센터에서 열린 경기 3쿼터 중 리바운드 볼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로이터·Troy Taormina-Imagn Images]

정규리그보다는 PO 등 단기전에서 특히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은 버틀러는 지난 16일 멤피스전 60%

의 높은 필드골 성공률로 38점을 폭발한 데 이어 이날도 골든스테이트의 공수를 책임졌다.

도합 25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올린 버틀러는 스틸도 5개나 기록하며 전방위로 활약했다.

휴스턴이 맹렬하게 추격하던 경기 막판에는 해결사를 자처했다. 스테픈 커리의 3점으로 82-75로 앞선 경기 종료 4분여 전 상대 공을 낚아채 휴스턴의 공격을 무위로 돌린 버틀러는 종료 1분 43초 전부터 1분간 연속 4득점을 올려 휴스턴을 울렸다. 경기 종료 28초 전 또 한 번 스틸을 기록해 휴스턴 공격을 막아낸 버틀러는 시원한 덩크슛을 작렬, 골든스테이트의 승리를 확정했다. 골든스테이트의 에이스 커리도 3점 5방을 적중, 31점을 몰아쳤다. 휴스턴에서는 알페넨 생권이 리그 정상급 수비수 드레이먼드 그린의 집중 수비를 이겨내고 26점 9리바운드로 분전했으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서부 1위 오클라호마시티 선더(68승 14패)는 안방에서 8번 시드 멤피스(48승 34패)를 무려 131-80으로 격파했다. 51점 차 승리를 거둔 오클라호마시티는 NBA 사상 5번째로 큰 점수차를 냈다. 이 부문 1위는 1956년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와 2009년 덴버 너기츠의 58점 차 승리다. [연합뉴스]

나 올라갈래~ 김혜성, 트리플A서 시즌 4호포

더블헤더 출전 팀 승리 견인
1번 유격수·2루수 멀티 활약

LAD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팀인 오클라호마시티 코메츠에서 뛰는 김혜성(26)이 시즌 4호 홈런과 6호 도루를 기록했다. 김혜성은 20오클라호마시티 치카소 브릭타운 볼파크에서 열린 타코마 레이니어스(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트리플A 팀)와의 홈 경기 더블헤더에 모두 출전해 8타수 3안타, 4타점 2득점 2도루를 기록했다. 1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1차전에서는 타격이 빛났다. 김혜성은 홈런 1개 등 4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1회 첫 타석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뒤, 2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상대 선발 마이클 메리어트의 시속 87.6마일 싱커를 받아쳐 유격수 앞 내야안타를 만들었다. 4회 삼진으로 물러난 김혜성은 팀이 5-4로 앞선 5회 2사 2, 3루에서 바뀐



5경기 만에 홈런을 친 김혜성. 트리플A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뛰는 그는 타율 0.265, 4홈런을 기록 중이다.

투수 윌 클라인의 시속 86마일 슬라이더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3점 홈런. 지난 12일 라운드록스프레스(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트리플A 팀)전 연타석 홈런 이후 8일 만이자 5경기 만에 나온 시즌 4호 홈런포다.

1차전에서 오클라호마시티의 8-4 승리에 힘을 보탠 김혜성은 이어진 2차전에서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을 선보였다. 2루수로 보직을 바뀌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2도루를 기록했다. 1회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에는 2루도 홈쳤다. 3회 1사 3루에선 투수 앞 땅볼로 타점을 추가했다. 또 8회엔 팀 승리에 기여하는 도루를 추가했다. 3-3으로 맞선 8회말 2루에 출루한 김혜성은 3루 도루에 성공했다.

이어진 마이클 차비스의 좌전안타 때 홈을 밟아 4-3 끝내기 승리로 이어진 결승 득점을 올렸다. 마이너리그는 더블헤더를 7회까지만 진행하며, 동점일 경우 8회부터는 주자를 2루에 두고 공격하는 특별규정(이른바 승부치기)을 적용한다.

공수에서 맹활약한 김혜성의 시즌 기록(21일 기준)은 타율 0.265(83타수 22안타), 4홈런·17타점·6도루. OPS(장타율+출루율) 0.840 등이다.

송지훈 기자

한인 김찬 PGA 투어 공동 7위
폰타카나 챔피언십, 2번째 톱10

김찬(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코랄레스 폰타카나 챔피언십(총상금 400만 달러) 공동 7위에 올랐다.

김찬은 20일 도미니카공화국 폰타카나의 코랄레스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오버파 74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적어낸 김찬은 발레로 텍사스 오픈 공동 5위에 이어 두 번째 톱10에 입상했다.

2세 때 미국으로 이민온 김찬은 세계 최정상급 장타력을 앞세워 주목받았다. PGA 투어 진출이 여의치 않자 뛰었던 일본 무대에서 8승이나 거뒀고 신인왕, 상금왕을 차례로 받았다.

PGA 2부투어인 콘페리투어에서도 2차례 우승했지만, PGA 투어에서는 크게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

코랄레스 폰타카나 챔피언십은 갈

은 기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시그니처 이벤트 RBC 헤리티지(총상금 2000만 달러)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들을 위해 마련된 대회다.

상금과 포인트는 여느 정규 대회에 비해 적지만 김찬은 이번 톱10 진입으로 페덱스컵 랭킹이 84위에서 77위로 오르는 소득을 얻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왼손잡이 개릭 히고는 2021년 팔메토 챔피언십 이후 4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이븐파 72타를 친 히고는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써냈고 알레한드로 토스티(아르헨티나), 예레미 파울(독일), 키스 미첼, 마이클 토르비슨, 조엘 데이먼(이상 미국) 등 5명의 공동 2위 그룹을 1타차로 제쳤다.

히고는 2년 투어 카드를 확보했다.



① 중앙일보 구독 신청 : 703-281-9660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 Anthem(Liberty) • Aetna • Humana • United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123 Ox Rd

Braddock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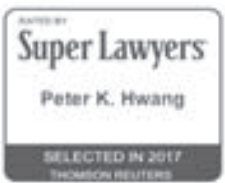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4월

구인

광고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간병사 코디네이터
구합니다

Hanmi Homehealth
(이전 CSC Home Care)

Springfield Office 에서
간병사 Schedule 관리 하고
Client Follow Up 하실 분
구합니다.

약간의 이중언어,
컴퓨터 관리 필요 합니다.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급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콧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찬모/ 웨이츄레스/ 웨이터
부패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라센서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팅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 화장품홀세일 (NYX L'OREAL) 세일즈 남자 구함
폴타임, 컴퓨터 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 분 연락바랍니다.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AM-8:00PM -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츠/폴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컷시티 픽업 스토어 카운터 구함
폴/파트타임, 배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 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소에서 바지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 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정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 301-538-4246(Soo)

싱글/타운 방 렌트

엘리컷시티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2.5, 즉시입주 가능, \$2,650
443-226-7578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도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뉴그랜드마트 근처,
육식팔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 하나 (출입구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중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
장고/육식/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육식팔린 이중 큰방, 반지하방 (출입
문별도) 주방, 육식,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유도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도
443-631-7866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983-1880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열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 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퍼센터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
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현매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한미홈헬스 간병사 코디네이터 구함
간병사 스케줄관리, Client Follow-up
약간의 이중언어, 컴퓨터 가능하신분
▶KDLHJL@gmail.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케어피플 홈헬스 (애난데일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센트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
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
금 보고 무료 서비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폴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폴/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팅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
함 .유경력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챔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챔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폴/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폴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애난데일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헬퍼 아
주머님, 카운터 캐쉬어 구합니다.
703-401-9879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엘리콧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찬모/ 웨이츄레스/ 웨이터
부패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
임/폴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
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폴타임 M-F (7am-4pm) 유경력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력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타
임, 캐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셰프/부주
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폴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폴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폴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바느질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엘리콧시티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571-332-6110 첼틀리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 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 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버크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플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 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전공 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말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폴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렌트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엘리콧시티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2.5, 즉시입주 가능, \$2,650 443-226-7578 센터빌 클린 파월 초등학교 타운하우스 렌트 \$3,200 방4, 화2.5, 차고 2, 전부 마 루, 업데이트, 새 페인트, 밝고 환한 집, 29/28/66/50/286, 근처에 H마트, 롯데, 성당, 4/15 입주 571-239-6054 맥클리 하이싱글 렌트 \$5,900 방5, 화3, 카포치2, 펜스, 전부 모던형 으로 리모델링, 메트로 근처, 6/1 입주 571-239-6054 첼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 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톤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 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스프링필드 1층 콘도 1베드 1 풀베스 월 1,600불 703-489-6926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1.5, 깨끗하 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가능 301-466-1646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 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 집.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 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 (물값과 개스비 포함되어 있음). H-Mart 가까이.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택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 없 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애난데일 3 bed room 반 지하 전체 렌트 5월 1일 입주 가능, 입구 별도, 주차 녀, 교 통 편리 703-395-4380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 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워크 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 녀 703-965-2343 스프링 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 넷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 완비 703-362-5425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 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료 443-631-7866	노바,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10분거리, 버크 싱글홈 지하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금연,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 하우스 욕실 딸린 방 하나 571-970-8048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 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직장인, 학 생 환영,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 방 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첼틀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 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웃은 하이스쿨 근처 싱글홈 전체 렌트 조용한 동네, 워크아웃, 방/부엌/욕실/거실 6월 1일 이후 입주 가능 571-271-3556 (문자요망)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 가능. 아침부터 저 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 들고, 깨끗 함. 작은 방, 큰방 입주 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 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콘도매매 \$375,000 스프링필드 방2, 화2, 새 카펫, 새 페인트, 택트인 구조, 넓 은 리빙룸, 발코니2 703-813-8949
--	--	---	---	--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콘도매매 \$369,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첸틀리 End Unit 벽돌 타운 하우스
\$779,000 방3, 화장실 3.5,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자이언트 몰 앞
▶703-239-6054

1. 사우스 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
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Commingsoon 리스트
Annandale 싱글홈 \$890,000
Springfield 싱글홈 \$800,000
South Riding 싱글홈 \$1.2m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맥,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
린 엔드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
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3. Open House 4/13(SUN) 2-4pm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
고1, 1,778sqft, RT29/66, Giant, Harris
Teeter, Gateway Shopping mall
▶703-239-6054

에난데일 콘도 \$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
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H
Mart 가가움
▶703-813-8949

1.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2010년, 방3, 화3.5, 차고2, 2,300sqft
Fair Oaks mall, route 50/66/286
2.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3, 화3.5, 차고1, 앤드유닛, 맥, 팬스, 파월
초, 센터빌하이
3. 패어팩스 콘도 \$580,000
방2, 화2, 차고2, 엘리베이터, 계단없는 단층
콘도. 1,078 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 Oaks mall, Fair lakes mall
4. 센터빌 중심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703-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
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
닥, 넓은 뒷뜰
3. 패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패어팩스 싱글 \$1,9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맨투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집
5. 옥튼새 싱글 \$2,300,000
방5, 화장실 4+1, 차고2
1.8에이커의 넓은 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맥클린 싱글 \$2,200,000
방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
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리 HS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 3.5, 랜트스익 \$2,900
2. 레스톤 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 2.5, 랜트스익 \$3,000
3.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 3.5, 호수뷰, 차고 2, 랜트\$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너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그로서리, 병
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qft, 29/66, 세븐일레븐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첸틀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 \$59,000)
혼자 할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 엔지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키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토폰샬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 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날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굿 \$3,000
571-814-8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와 합니다. (면대면 및 줌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팔립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
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손씨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
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맥,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맥 메
인터넨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
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맥,
그외 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 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 파워 스티밍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시, 파워 폴싱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집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집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힘처리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
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가계 다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설치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 · 기술력 과 서비스 · 경쟁력 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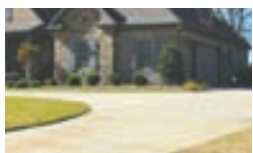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느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계단

워크웨이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재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레너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세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씽크오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수리
케리아웃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정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Seafood Carry-Out을
소개합니다!

\$65,000 Only.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탄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کم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70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임업 벌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위싱턴 중앙일보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cott: Hi. Are these flowers from the garden?
스캇: 잘 지냈어. 저 꽃들 정원에서 가져온 거야?
Evelyn: Yes. I picked them a few minutes ago. How was your day?
에벌린: 응. 방금 꺾은 거야. 오늘 어땠어?
Scott: As a matter of fact it was very unusual.
스캇: 사실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어.
Evelyn: What does that mean? It doesn’t sound good.

에벌린: 그게 무슨 말이야?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은데.
Scott: It isn’t bu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스캇: 별로 안 좋지만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지.
Evelyn: Please don’t beat around the bush. Tell me what was so unusual at work.
에벌린: 빙 돌려 얘기하지 마. 직장에서 평범하지 않았던 게 뭔지 얘기해 봐.
Scott: Today the boss told me the company is going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Scott comes home from work and sees his wife arranging flowers in the kitchen. (스캇이 퇴근하니 아내가 부엌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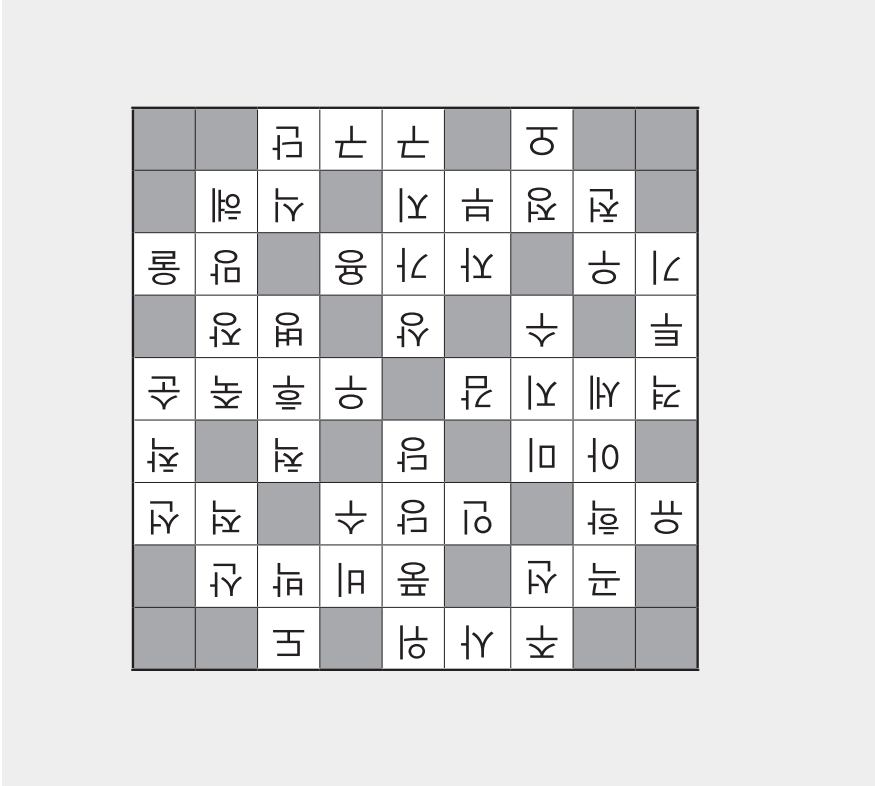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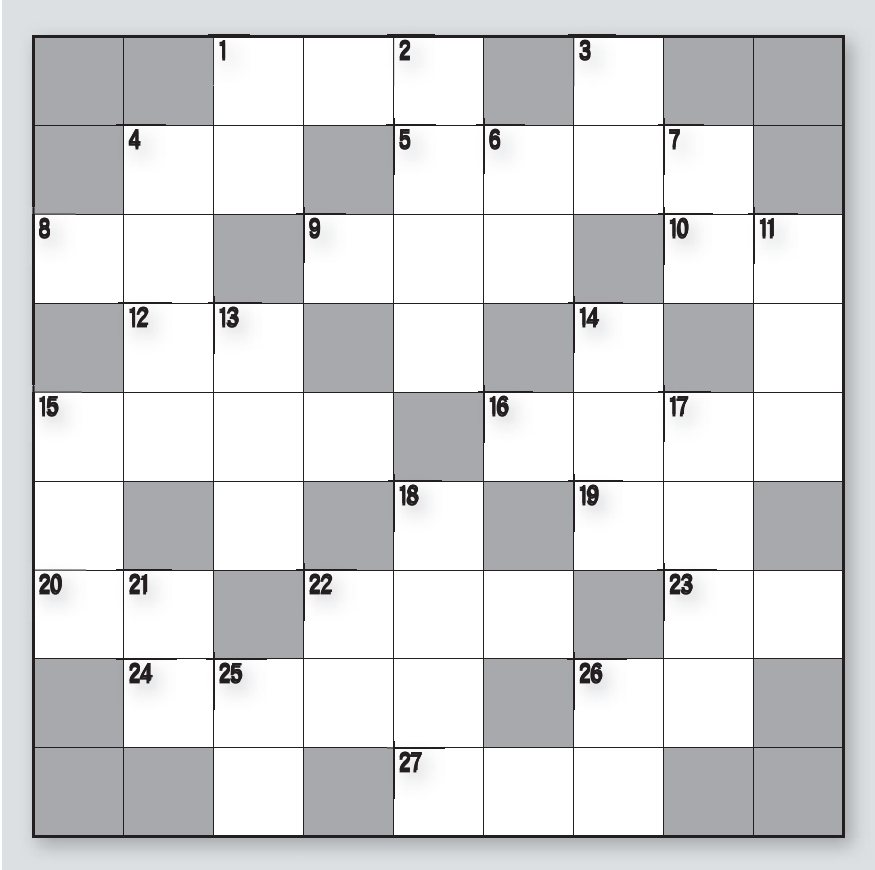
to downsize in a matter of weeks.
스캇: 오늘 상사가 그러는데 몇 주 안으로 회사가 감량 경영에 들어간데.
Evelyn: Are you going to lose your job?
에벌린: 실직하게 되는 거야?
Scott: No. My job is safe for now.
스캇: 아니. 현재로서는 안전해.
Evelyn: Maybe you should start looking for another job.

에벌린: 당신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해야겠네요.

기억할만한 표현

▶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Well as a matter of fact I heard that they are divorcing.”
(글쎄 사실은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들어.)
*in a matter of minutes/days/weeks: 몇 분 / 며칠 / 몇 주 사이에

낱말퀴즈



가로열쇠

(1)정육면체의 각 면에 하나에서 여섯까지의 점이 새겨져 있조 (4)부드럽게 굽은 선. 직선은 인간의 것이고 ~은 신의 것이다(안토니오 가우디) (5)바람에 날려 우박이 흩어짐.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날아가거나 흩어짐 (8)외국에 나가 공부함. 일본으로 ~을 떠났다 (9)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고 빠졌다는 물 (10)거지에게 도움을 줌. 착한 일을 많이 함. 나는 한푼만 ~을 하라는 거지에게 돈을 주었다 (12)누에나방의 모양처럼 아름다운 미인의 눈썹 (15)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16)비온 뒤에 솟아나는 죽순처럼 한때에 무성하게 생기거나 일어나는 모습 (19)하사의 아래, 상등병의 위인 사병 계급 (20)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함 (22)개인의 가정에서 전용하는 자동차 (23)아직 피지 않은 어린 꽃봉오리. 눈앞 앞쪽의 두두룩한 곳 (24)천장을 알지 못함. 물건값 따위가 자주 오르기만 함 (26)밤을 엿기름으로 착혀서 감미가 나도록 만든 음료 (27)곰셈에 쓰는 기초 공식. 이일은 이 이이논사 이삼은육...

세로열쇠

(1)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 (2)종채나 기세가 위엄 있고 뚝뚝함 (3)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일. 노름 (4)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6)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 (7)쇠고기 따위를 길쭉길쭉하게 썰어 갖은양념을 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11)먼저 와 닿는 차례 (13)방정식에서 구하려고 하는 수. 예측할 수 없는 앞일. 이번 보고안이 그 대로 채택될지는 아직 ~다 (14)적의 형편이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 ~을 보내어 적의 동정을 살폈다 (15)두 사람이 맞서 겨뤄서 승패를 가리는 경기. 유도, 씨름, 권투, 레슬링 따위 (17)대지팡이와 짝심. 먼 길을 떠날 때의 아주 간편한 차림새. 방랑사인 김삿갓 김병연은 일생 동안 ~로 세상을 유람하였다 (18)상갓집의 개.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누구의 배려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존재. 상 □□□ (21)비가 오는 날씨 (22)머느리 (25)낮 12시 (26)일정한 기간 동안 먹음 음식의 종류와 순서를 짜 놓은 계획표

스도쿠

		1	4	2	7			5
8	4					1		
2	3			5	8		6	9
	8	4	3	1		7		
			6			8		
1		2		8	4	9		6
5	9	8			1		7	3
	1	3						4
			7	9	3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1	5	3	6	2	9	7	4
4	6	2	5	9	8	3	1	7
3	7	9	1	4	2	8	6	5
9	3	6	4	8	5	2	7	1
1	4	8	2	7	9	6	5	3
2	5	7	6	1	3	4	8	9
6	9	4	8	5	1	7	3	2
7	2	1	9	3	6	5	4	8
5	8	3	7	2	4	1	9	6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MP MilestonePoint **비즈니스 융자 / SBA / 상용 부동산 융자 / 주택 융자** **LOAN FACTORY**
NMLS #320841

Terry Kwon, Loan Originator
NMLS #2620208

- SBA 비즈니스 융자 \$5,000,000까지
- 35개 이상의 SBA 전문 렌더
- 추가 SBA론, 별도 브로커 비용 없음
- 새로 비즈니스 인수 - 10% 다운
- SBA 부동산 융자 - 10% 다운, 단 51% 공간 직접 사용 요구, 25년 상환
- 크레딧 손상 안되는 SBA 무료 승인

- 단기 간단하고 빠른 머천론
- Business Line of Credit
- 기계 장비 융자
- 상용 부동산 융자
- 투자용 부동산 융자
- 단기 부동산 융자: 건축융자, 브릿지론, Fix & Flip

"오랜 경험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및 부동산 융자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전화: (631) 624-4480
웹사이트: milestonepointinc.com

- 론팩토리는 미국내에서 매년 가장 많은 주택 모기지 클로징하는 브로커리지
- 240 이상의 모기지 프로그램에서 좋은 이자율과 조건을 찾아드리기 때문
- 론팩토리는 미국 48개주 라이선스 보유
- 즉석 모기지 이자율 견적- 무료 모기지 쇼핑

- 주택 구입/재융자
- 무료 상담 및 사전 승인
- 2차 융자: HELOC, HELoan
- FHA 낮은 크레딧과 적은 다운
- 세금보고서 대신 은행 명세서
- 외국인 주택 구매
-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애틀랜타
구인
Senior Manager:
Manage logistics operations: Bachelor's in Business Admin, or related req'd, 40hrs/wk; Apply to Kumho Tire U.S.A, Inc, 1001 Summit Blvd NE, #1800, Atlanta, GA 30319

기타 지역
하숙 · 렌트
한국/서울아파트렌트
동대문근교
한달렌트비 \$1,800
장/단기 및 시설 완비
(808)989-1082
(808)989-5424
매매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미국 생활에 대한
고급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
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립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 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를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ADT 시큐리티 알람서비스

“강도, 도둑도 방지,
예방이 최고입니다.”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가 최고입니다.

남가주 최대
공인딜러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무료 초인종 카메라
전화기로 연결 가능

Since 1874

ADT

877.373.0265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립니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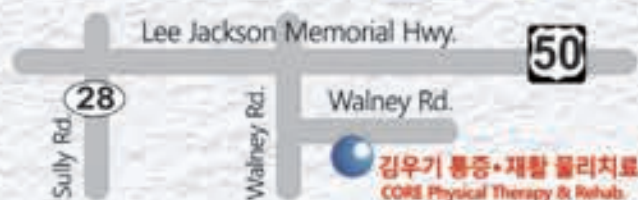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